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2017. 12. 15.(금) 12:00	 통계청
	배포일시	2017. 12. 14.(목) 14: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과 장: 이재원(042-481-2233) 사 무 관: 김영란(042-481-2242)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일 리 두 기

1.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과 가정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지표 및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3. 보도자료의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지표별로 자료출처나 기준년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표 작성에 이용된 자료는 미승인 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람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고용노동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고용노동부)
4. 이 지표는 e-나라지표(www.index.go.kr)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 e-나라지표 > 영역별지표 > 가족 >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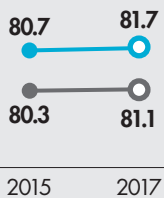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일·가정 양립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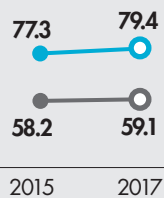
인지도 및 도입율

(단위: %) ■ 국민의 인지도 ■ 기업의 도입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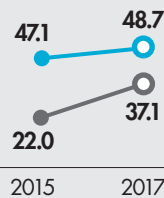
출산(전후) 휴가제



육아휴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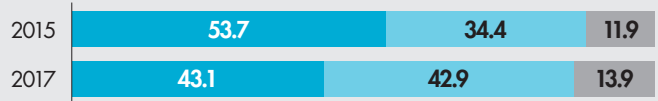


유연근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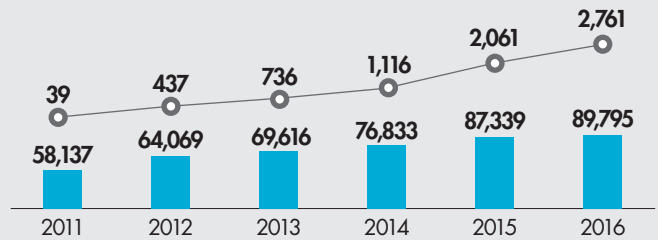
일·가정 우선도

(단위: %) ■ 일이 우선이다 ■ 둘다 비슷하다 ■ 가정이 우선이다



육아 지원 제도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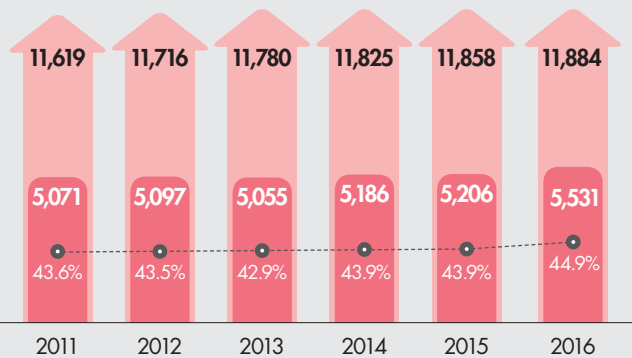
(단위: 명) ■ 육아휴직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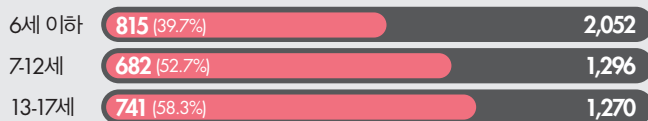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단위: 천가구)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자녀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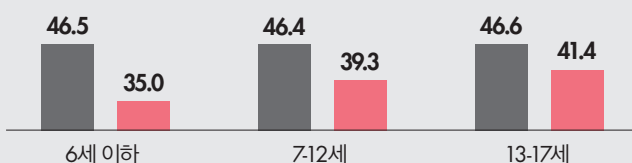


자녀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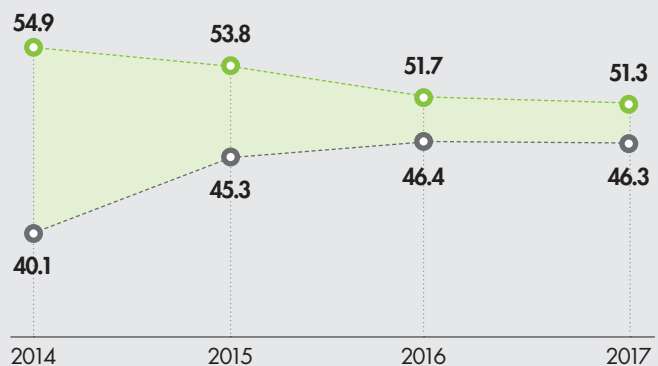
(단위: 시간) ■ 남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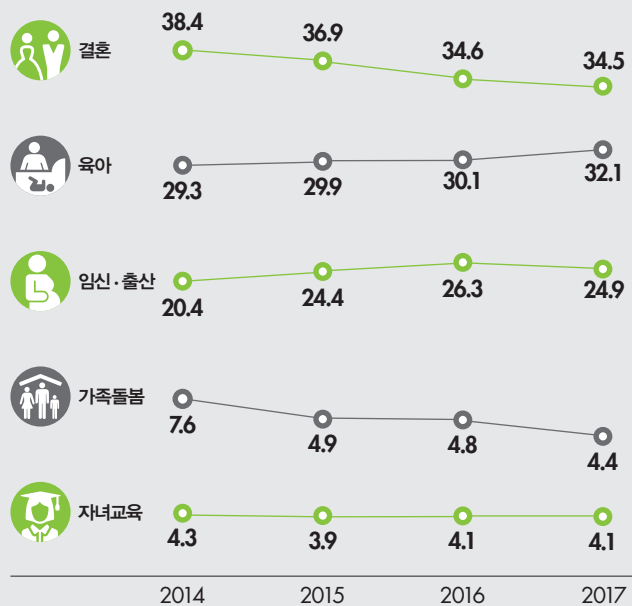
여성 경력단절

경력단절(경험) 규모

(단위: %) ■ 비취업 여성 ■ 취업 여성



경력단절 사유 (비취업 여성)



목 차

■ [요 약]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1
-------------------------------	---

■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5
-------------------------	---

I. 가 구

1. 가족형태별 가구구성	6
2. 맞벌이 가구	7
3.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8

II. 고 용

4. 고용동향	9
[참고] 자녀 연령별 부모의 고용률	10
5. 여성 경력단절 규모 및 사유	11
6.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12
7.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13

III. 근로시간

8. 평균 근로시간과 취업자 수	14
9. 자녀 연령별 부모의 근로시간	15
10. 맞벌이 가구 근로시간	16
11. 초과 근로	17
12. 휴가	18
13. 여가시간	19

IV. 보 육

14.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20
15. 보육시설 이용 및 가정양육	21
16.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율	22

V. 사회제도

17. 육아휴직자 수	23
[참고] 육아휴직 사용률	24
18.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25
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6
20. 가족친화 인증제도	27
21.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28
22. 일·가정 양립제도	29
23. 유연근로제도	30

▣ 통계표	32
-------------	----

[요약]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국민의 인지도는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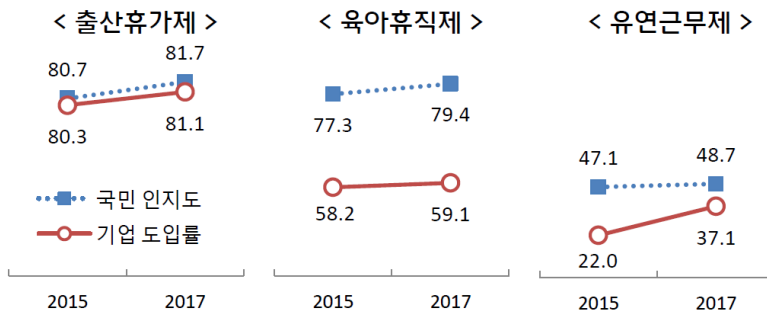
-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과 인지도(2015→2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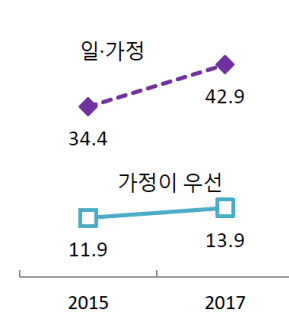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 도입률(기업, %)	80.3 → 81.1	58.2 → 59.1	22.0 → 37.1
· 인지도(국민, %)	80.7 → 81.7	77.3 → 79.4	47.1 → 48.7

- 임금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가정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



【 일·가정 우선도(%) 】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1,828개로 전년보다 34.1% 증가함

- 2016년 말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수는 1,828개로 전년 (1,363개)보다 34.1%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기업 285개, 중소기업 983개, 공공기관은 560개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음
- 2017년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인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37.1%로 전년보다 15.2%p 증가함

【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수 】

	총 인증 기업(기관) 현황 (단위:개, %)				
	2014	2015	2016	비율	증감
계	956	1,363	1,828	100.0	34.1
대 기업	223	258	285	15.6	10.5
중소기업	428	702	983	53.8	40.0
공공기관	305	403	560	30.6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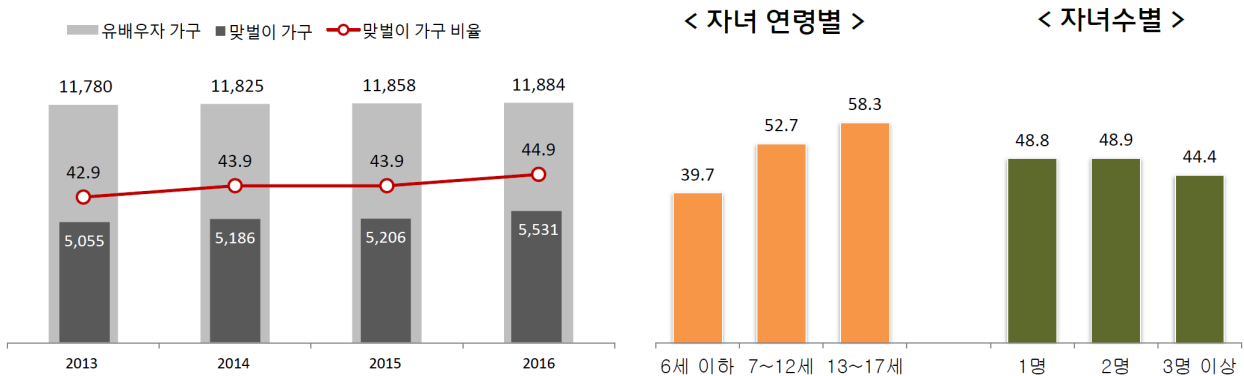
【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

	도입률	(단위:%)				
		시간(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2015	22.0	11.3	12.7	9.2	5.3	3.4
2016	21.9	11.6	12.5	11.6	3.3	4.1
2017	37.1	24.6	22.7	18.6	9.5	8.5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9%로 전년보다 1.0%p 증가하였고,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은 낮음

- 2016년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4.9%로 전년보다 1.0%p 증가함
- 취학 이전의 자녀(6세 이하)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39.7%)이 초·중학생 연령의 자녀를 둔 맞벌이 비율보다 낮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44.4%)가 1~2명인 경우(약 49%)보다 맞벌이 비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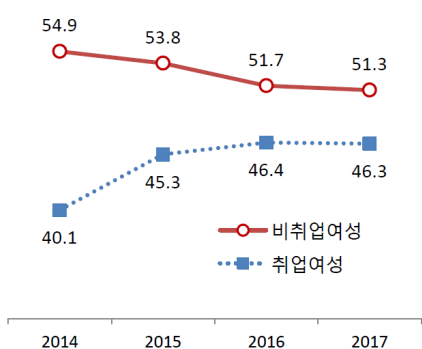
【 맞벌이 가구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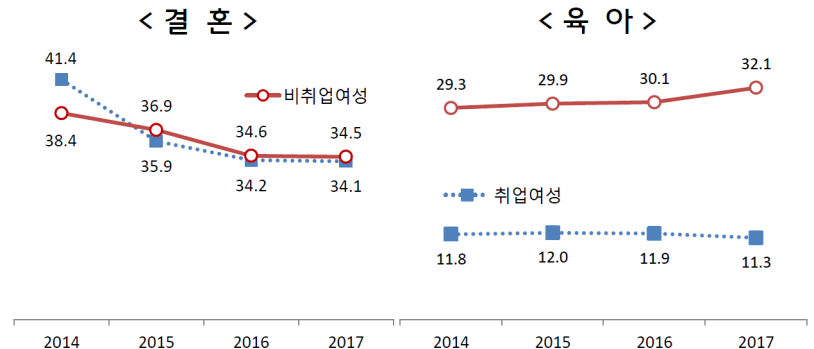
기혼 여성(15~54세)의 경력단절 비율은 감소함(22.4%^{2014년} → 20.0%^{2017년})

- 15~54세의 기혼 여성 중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전년보다 0.1%p 감소하고,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0.4%p 감소함
-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경험) 비율은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감소 추세이며, 육아로 인한 사유는 취업여성은 전년 대비 11.9%에서 11.3%로 감소한 반면, 비취업여성은 전년 대비 30.1%에서 32.1%로 증가함

【 경력단절(경험) 규모(%) 】



【 경력단절(경험)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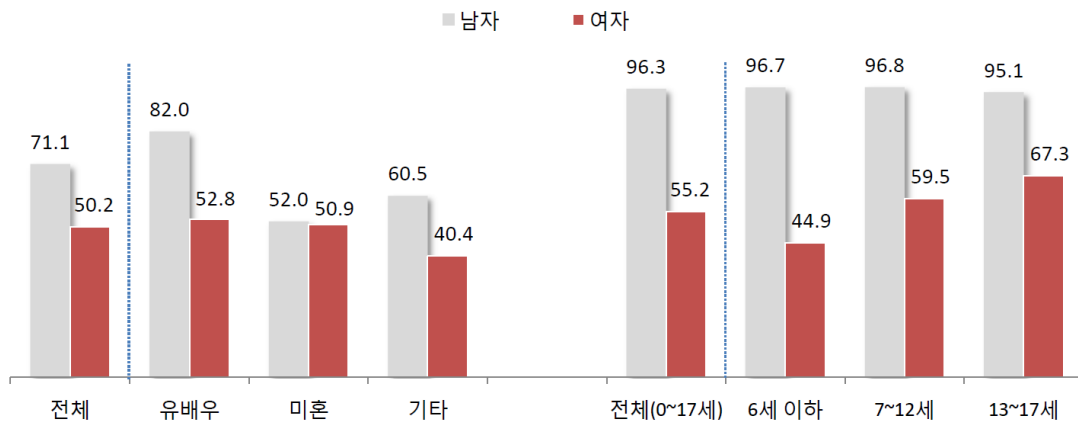


2016년 미혼인 남녀 고용률 차이는 1.1%p이나, 유배우자의 경우는 그 차이가 29.2%p(남자 82.0%, 여자 52.8%)까지 벌어짐

- 2016년 고용률은 남자가 71.1%, 여자는 50.2%로 그 차이는 20.9%p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녀간 고용률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음
 - * 남녀 고용률 차이 : 22.0%p('13) → 21.9%p('14) → 21.2%p('15) → 20.9%p('16)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남자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여자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 고용률(%) 】

【 자녀 연령별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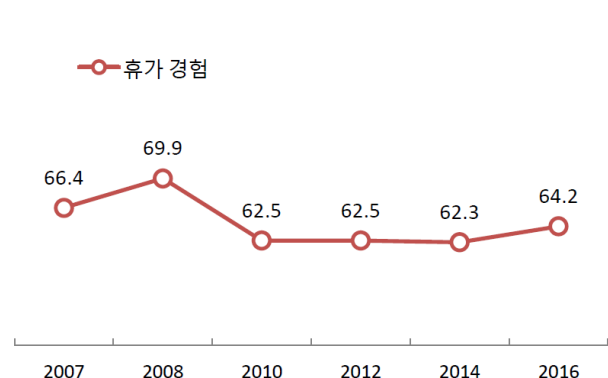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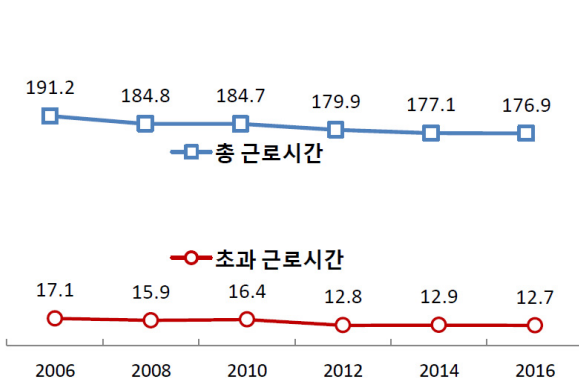


10년 전 보다 총 근로시간은 14.3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4.4시간 감소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2년 전보다 1.9%p 증가함

- 2016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2006년 191.2시간보다 14.3시간 감소함
 - 초과 근로시간은 12.7시간으로 2006년 17.1시간 보다 4.4시간 감소함
- 2016년에 지난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2%로 2년 전보다 1.9%p 증가함

【 근로시간(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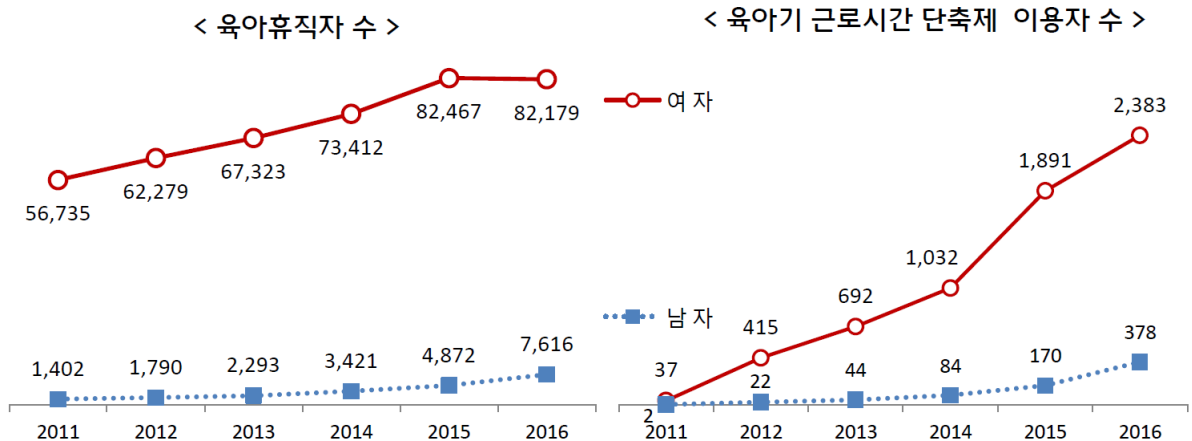
【 휴가 경험(%) 】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전년보다 남자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함

- 2016년 육아휴직자 수는 8만9,79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전년보다 56.3% 증가한 7,616명임
 - 여자 육아휴직 사용자는 82,179명으로 2015년 82,467명에서 288명 감소함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년보다 34.0%가 증가한 2,761명으로 남녀 사용자 모두 증가함

【 육아 지원제도 이용자 수(명) 】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0~2015년 기간 동안 0~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은 모(母)는 42.9%, 부(父)는 1.0%로 모(母)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26.6%에서 2015년 43.1%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사용률¹⁾ 】

(단위:%)

0~5세 ²⁾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모(母)	부(父)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2.9	1.0	26.6	31.8	34.2	37.6	40.1	43.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 통계청 「종사자DB」, 「출생DB」, 「영아 사망DB」를 이용한 시산자료로 이용 자료에 따라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람

주 : 1) 자녀의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2) 시산 기간(2010~2015)에 따른 연령임. 육아휴직 대상인 만 8세까지의 사용률은 향후 2018년 자료 까지 기간 누적 시 산출 가능

2017 일 · 가정 양립 지표

1. 가 구

1. 가족형태별 가구구성

2016년 부부, 부부+미혼자녀는 전년보다 증가하고, 한부모+미혼자녀는 감소함

- 2016년 혈연가구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4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부(21.9%), 한부모+미혼자녀(14.6%) 구성의 가족형태가 많음
 - 부부, 부부+미혼자녀는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한부모+미혼자녀는 감소함
- “부부”인 경우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고, “부부+미혼자녀”는 40대, “한부모+미혼자녀”는 30세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모와 미혼자녀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부부+양(편)친+미혼자녀” 가족형태는 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가구는 자녀가 1명인 경우의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자녀가 2명이나 그 이상인 경우는 전년보다 감소함

【 가족형태별 가구구성 】

(단위 : 천 가구, %)

	혈연가구 ¹⁾	계	부부	부부+미혼자녀 ²⁾	한부모+미혼자녀	조부모+미혼손자녀 ³⁾	부부+양(편)친+미혼자녀	기타
2005	12,491	100.0	18.1	54.2	11.0	0.5	5.7	10.6
2010	12,995	100.0	20.6	49.8	12.3	0.9	5.0	11.4
2015	13,693	100.0	21.8	45.5	15.0	0.8	4.2	12.6
2016	13,701	100.0	21.9	45.7	14.6	0.8	4.2	12.9
30세 미만	340	100.0	15.3	26.6	19.3	3.7	1.2	34.0
30~39세	2,211	100.0	13.5	59.6	13.5	0.3	3.9	9.3
40~49세	3,578	100.0	6.5	61.5	18.1	0.0	5.2	8.6
50~59세	3,702	100.0	17.3	50.1	16.9	0.2	4.4	11.3
60세 이상	3,869	100.0	45.8	20.7	9.4	2.2	3.4	18.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주 : 1)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 가구 제외
- 2) 부부 + 미혼자녀 + 부부미혼형제자매 포함
- 3) 조부 또는 조모 + 미혼손자녀 포함

【 미성년¹⁾ 자녀수별 가구 현황 】

(단위 : 천 가구, %)

	2015				2016			
	전체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1명	2명	3명 이상
미성년 가구	5,701	2,165	2,930	605	5,573	2,162	2,824	587
구성비	100.0	38.0	51.4	10.6	100.0	38.8	50.7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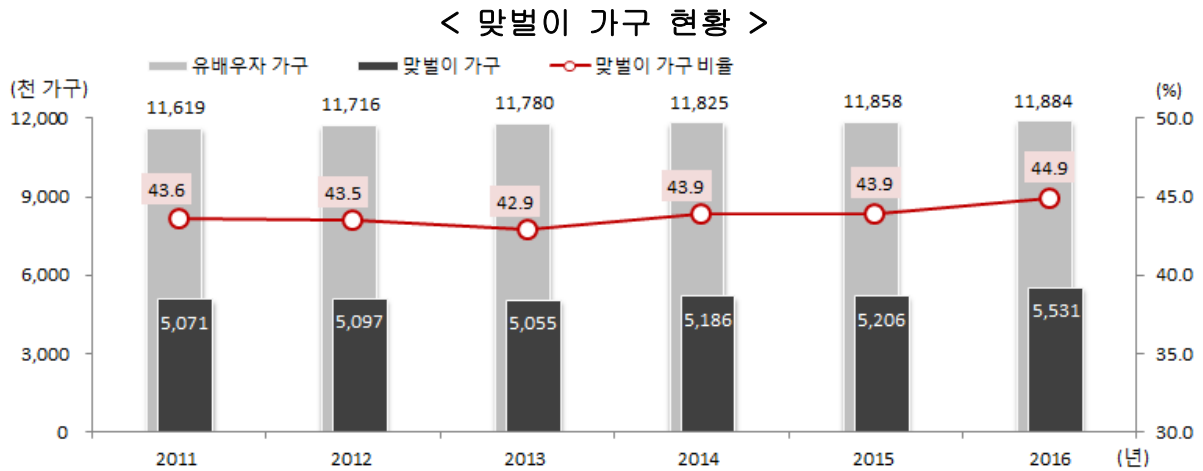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보도자료

- 주 : 1) 만 18세 이하 내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가구(자녀수에는 19세 이상 형제자매 포함 집계)

2.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9%(553만1천 가구)로 전년보다 1.0%p 증가함

- 2016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53만1천 가구로 유배우자 가구 중 44.9%를 차지하며 전년(43.9%)보다 1.0%p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0대와 50대는 각각 52.7%, 53.5%로 유배우자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맞벌이 가구 비율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가 전년보다 증가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년 이전은 각년도 6월 기준

【 맞벌이 가구 현황 】

(단위 : 천 가구, %)

	2013			2014			2015			2016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전 체	11,780	5,055	42.9	11,825	5,186	43.9	11,858	5,206	43.9	11,884	5,531	44.9
15~29세	188	70	37.4	174	65	37.4	163	62	37.9	154	59	38.2
30~39세	2,094	851	40.6	2,015	848	42.1	1,952	831	42.6	1,888	843	44.6
40~49세	3,250	1,650	50.8	3,191	1,654	51.8	3,116	1,602	51.4	3,046	1,606	52.7
50~59세	3,224	1,609	49.9	3,287	1,685	51.3	3,313	1,713	51.7	3,315	1,775	53.5
60세 이상	3,023	875	29.0	3,159	934	29.6	3,314	999	30.1	3,480	1,049	30.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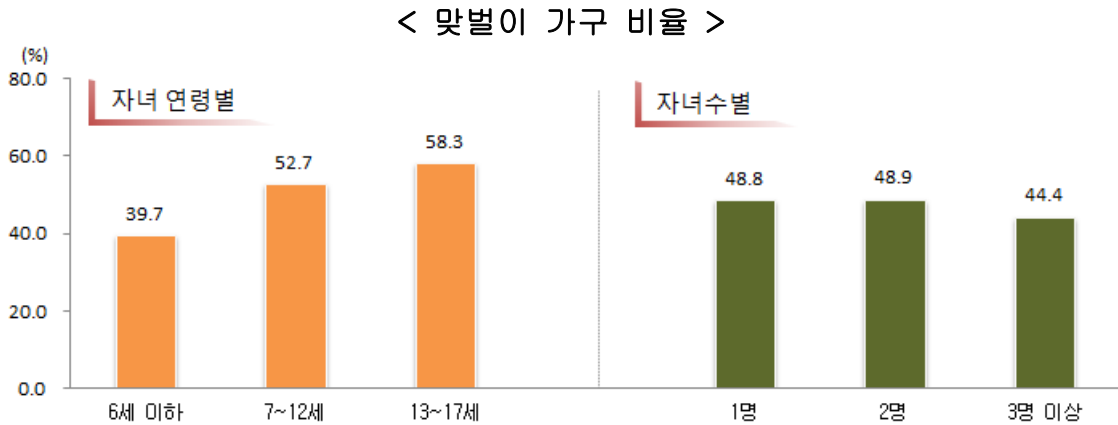
주 : 1)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2)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3.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율은 낮음

- 2016년 10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23만8천 가구로 유배우자 가구 중 48.5%를 차지하고 전년(47.3%)보다 1.2%p 증가함
- 자녀 연령별로 보면, 주로 취학 이전인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은 39.7%로 가장 낮고, 초·중학생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절반을 넘어 7~12세가 52.7%, 13~17세가 58.3%로 나타남
-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44.4%)가 자녀가 1~2명인 경우보다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낮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자녀 연령별¹⁾ 및 자녀수별 맞벌이 가구 현황 】

(단위 : 천 가구, %)

		2014			2015			2016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²⁾	비율 ³⁾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전 체		11,825	5,186	43.9	11,858	5,206	43.9	11,884	5,531	44.9
0~17세 (비중)		4,838 (40.9)	2,286 (44.1)	-	4,701 (39.6)	2,222 (42.7)	-	4,617 (38.9)	2,238 (40.5)	-
자녀 연령	6세 이하	2,131	797	37.4	2,084	794	38.1	2,052	815	39.7
	7~12세	1,352	696	51.4	1,315	678	51.6	1,296	682	52.7
	13~17세	1,335	793	58.6	1,303	750	57.6	1,270	741	58.3
자녀 수	1명	2,119	1,022	48.2	2,082	994	47.7	2,079	1,015	48.8
	2명	2,305	1,090	47.3	2,211	1,056	47.7	2,139	1,047	48.9
	3명 이상	413	175	42.3	407	172	42.2	399	177	44.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주 : 1)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

2)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3)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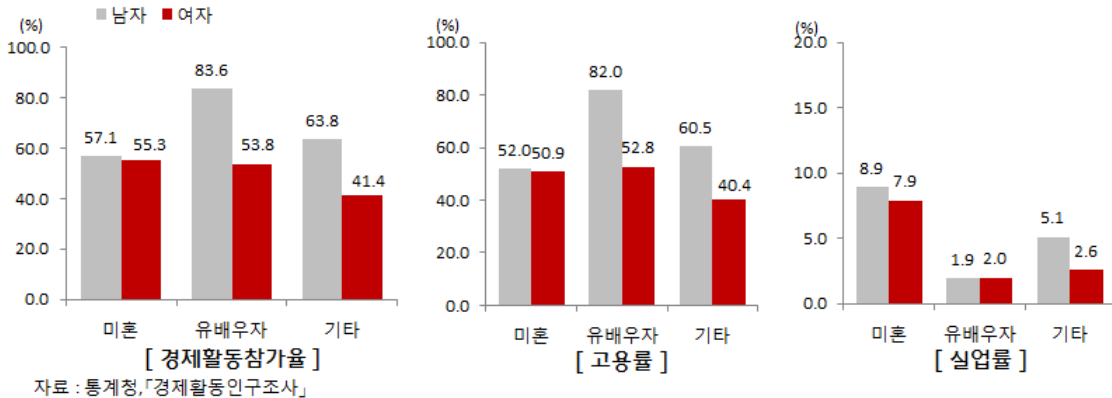
II. 고용

4. 고용동향

2016년 미혼인 경우 남녀 고용률 차이는 1.1%p이나
유배우자의 경우는 그 차이가 29.2%p(남자 82.0%, 여자 52.8%)까지 벌어짐

- 2016년 고용률은 남자가 71.1%로 여자(50.2%)보다 20.9%p 높으나, 남녀 고용률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임
 - * 남녀 고용률 차이 : 22.0%p('13) → 21.9%p('14) → 21.2%p('15) → 20.9%p('16)
- 혼인상태별 남녀 고용률 차이는, 미혼인 경우 1.1%p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남자 82.0%, 여자 52.8%로 그 차이가 29.2%p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실업률은 남녀 각각 3.8%, 3.6%로 비슷하며,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미혼일 때 실업률이 가장 높음

< 혼인상태별·성별 고용동향(2016) >



【 혼인상태별·성별 고용동향 】

(단위 : %)

	경제 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61.3	61.5	62.4	62.6	62.8	59.4	59.5	60.2	60.3	60.4	3.2	3.1	3.5	3.6	3.7
남자	73.3	73.2	74.0	73.8	73.9	70.8	70.8	71.4	71.1	71.1	3.4	3.3	3.6	3.7	3.8
미혼	52.2	52.6	54.4	55.9	57.1	48.2	48.3	49.7	51.2	52.0	7.7	8.1	8.8	8.5	8.9
유배우자	84.2	84.2	84.6	83.9	83.6	82.5	82.7	83.1	82.3	82.0	2.0	1.8	1.8	1.9	1.9
기타 ¹⁾	65.7	65.5	65.8	64.9	63.8	62.4	63.0	62.7	61.8	60.5	5.1	3.8	4.7	4.9	5.1
여자	49.9	50.2	51.3	51.8	52.1	48.4	48.8	49.5	49.9	50.2	3.0	2.9	3.5	3.6	3.6
미혼	51.1	50.5	52.5	54.2	55.3	47.9	47.2	48.7	50.4	50.9	6.2	6.6	7.3	7.0	7.9
유배우자	52.2	52.8	53.6	53.6	53.8	51.3	52.0	52.4	52.4	52.8	1.8	1.5	2.1	2.2	2.0
기타	39.4	40.1	41.3	41.8	41.4	38.4	39.1	40.2	40.6	40.4	2.7	2.4	2.7	2.9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1) '이혼, 사별' 포함

참고 자녀 연령별 부모의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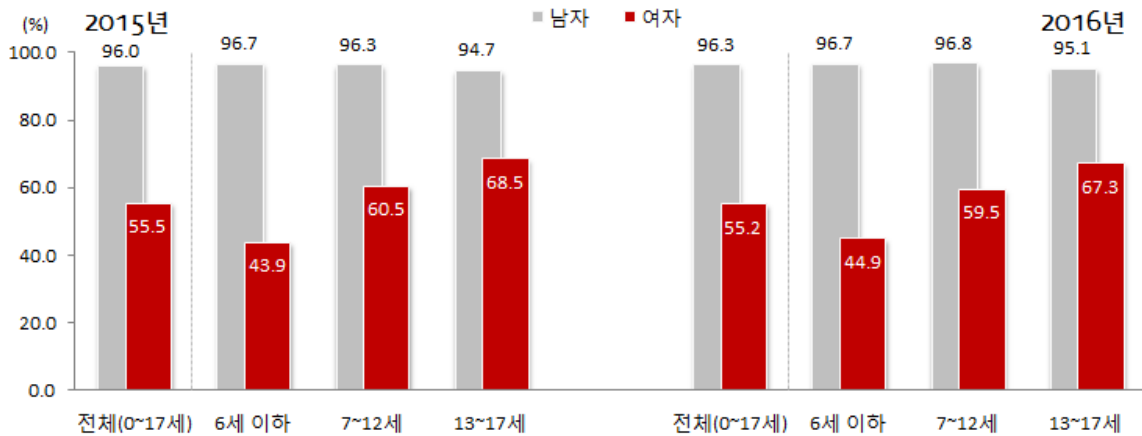
모(母)의 고용률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낮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만 전년보다 1.0%p 증가함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父)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모(母)의 고용률은 낮은 경향이 있음

* 자녀 연령별 모(母)의 고용률 : 44.9%(6세 이하) → 59.5%(7~12세) → 67.3%(13~17세)

□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부(父)의 고용률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모(母)의 고용률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만 전년보다 1.0%p 증가함

< 자녀 연령별 부모의 고용률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자녀 연령별 부모의 고용률 】

(단위 : %, %p)

	2014				2015				2016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남 자	96.1	96.7	96.3	94.7	96.0	96.7	96.3	94.7	96.3	96.7	96.8	95.1
여 자	54.5	42.8	58.7	68.0	55.5	43.9	60.5	68.5	55.2	44.9	59.5	67.3
차이(남-여)	41.6	53.9	37.6	26.7	40.5	52.8	35.8	26.2	41.1	51.8	37.3	27.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결과에 따른 시산자료

주 :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기혼(유배우자, 이혼, 사별)이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로
자녀의 연령은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함

5. 여성 경력단절 규모 및 사유

기혼여성(15~54세)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0%(181만2천명)로 2014년(22.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17년 4월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905만3천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81만2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20.0%를 차지함
 -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2014년 22.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중은 30~39세(72.1%)가 가장 많고, 다음은 15~29세(61.5%), 40~49세(43.9%), 50~54세(22.2%)순임

【 여성 경력단절 규모 】

(단위 : 천명, %)

	15~54세 기혼여성(A)		비취업여성 ¹⁾ (B)			경력단절여성 ²⁾ (C)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비율(B/A)	인원	구성비	비율(C/A)	비율(C/B)
2014	9,561	-	3,894	-	40.7	2,139	-	22.4	54.9
2015	9,420	-	3,815	-	40.5	2,053	-	21.8	53.8
2016	9,273	-	3,688	-	39.8	1,906	-	20.6	51.7
2017	9,053	100.0	3,535	100.0	39.1	1,812	100.0	20.0	51.3
15~29세	464	5.1	239	6.7	51.4	147	8.1	31.6	61.5
30~39세	2,746	30.3	1,288	36.4	46.9	928	51.2	33.8	72.1
40~49세	3,836	42.4	1,345	38.0	35.0	590	32.6	15.4	43.9
50~54세	2,007	22.2	665	18.8	33.1	147	8.1	7.3	22.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4월

- 주 : 1) 비취업여성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함
 2)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2017년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34.5%로 가장 많고, 이어서 「육아(32.1%)」, 「임신·출산(24.9%)」, 「가족돌봄(4.4%)」, 「자녀교육(4.1%)」순임
 - 「결혼」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여성 경력단절 사유 】

(단위 : 천명, %)

	전체	비율	결혼		임신·출산		육아 ¹⁾		자녀교육 ²⁾		가족돌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4	2,139	100.0	822	38.4	436	20.4	627	29.3	93	4.3	162	7.6
2015	2,053	100.0	757	36.9	501	24.4	614	29.9	80	3.9	101	4.9
2016	1,906	100.0	659	34.6	502	26.3	574	30.1	79	4.1	92	4.8
2017	1,812	100.0	625	34.5	451	24.9	581	32.1	75	4.1	81	4.4
15~29세	147	100.0	52	35.4	56	38.0	38	25.6	0	0.2	1	0.8
30~39세	928	100.0	281	30.3	274	29.5	339	36.5	25	2.7	9	1.0
40~49세	590	100.0	224	37.9	106	18.0	178	30.1	43	7.2	40	6.7
50~54세	147	100.0	68	46.1	15	10.0	27	18.5	7	4.5	31	20.7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4월

- 주 : 1)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
 2)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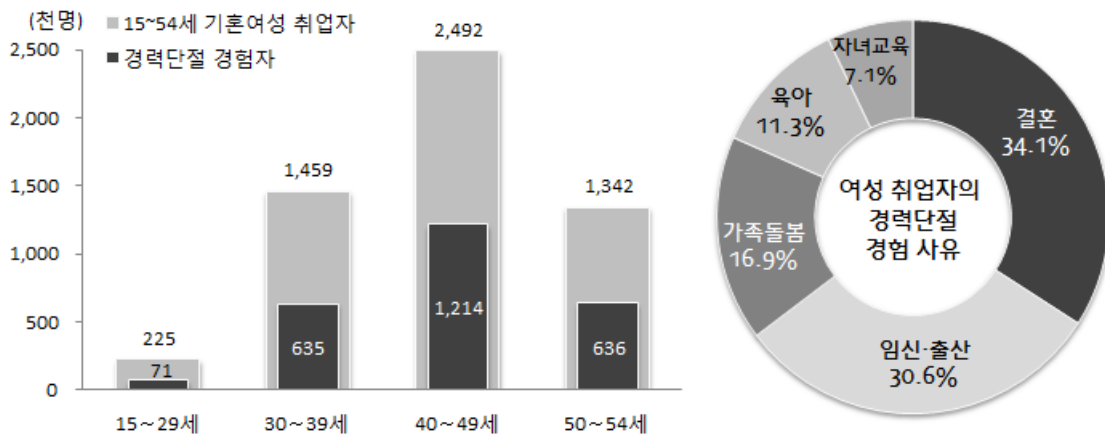
6.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중 46.3%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음

□ 2017년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551만8천명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일)을 그만 둔 적이 있는 경험자는 255만5천명(46.3%)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49세가 121만4천명(48.7%)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가장 많고, 다음은 50~54세(47.4%), 30~39세(43.5%), 15~29세(31.6%) 순임
- 30대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많음

<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규모 및 사유(2017)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규모 및 사유(2017) 】

(단위 : 천명, %)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자	비율	경력 단절 사유					가족돌봄	비율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5,518	2,555	46.3	871	34.1	782	30.6	288	11.3	182	7.1	433	16.9
15~29세	225	71	31.6	29	41.5	28	40.2	9	12.9	1	1.0	3	4.4
30~39세	1,459	635	43.5	196	30.9	258	40.6	104	16.4	34	5.3	43	6.7
40~49세	2,492	1,214	48.7	414	34.1	356	29.3	131	10.8	103	8.4	211	17.4
50~54세	1,342	636	47.4	231	36.4	140	22.0	44	6.9	45	7.1	176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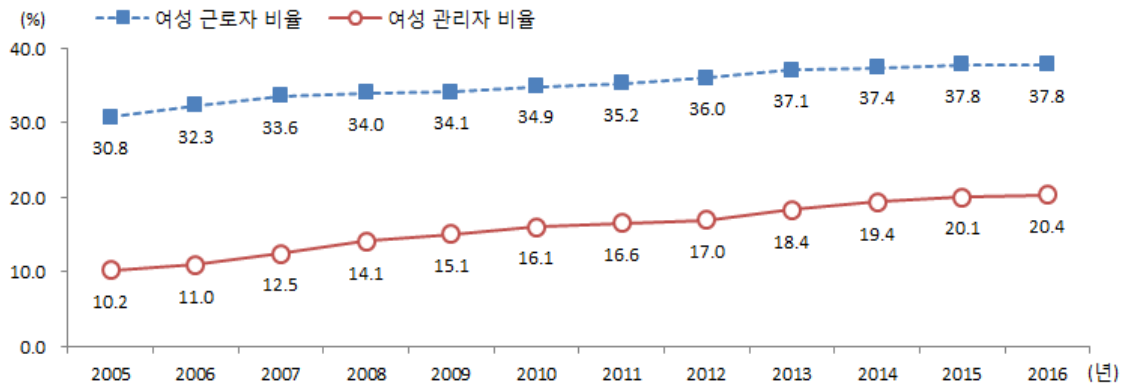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7. 4.

7.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5년 10.2%에서 2016년 20.4%로 비율이 2배 증가함

- 2016년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8%,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로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임
 -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06년 도입)로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
-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5년 10.2%에서 2016년 20.4%로 비율이 2배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



자료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

(단위 : %)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2005	30.8	23.6	32.5	10.2	6.1	11.2
2010	34.9	31.2	35.6	16.1	10.5	17.1
2011	35.2	32.4	35.7	16.6	11.0	17.6
2012	36.0	33.6	36.5	17.0	11.6	18.0
2013	37.1	35.7	37.4	18.4	13.9	19.2
2014	37.4	36.4	37.6	19.4	15.9	20.0
2015	37.8	37.3	37.9	20.1	16.4	20.8
2016	37.8	38.3	37.7	20.4	16.5	21.2
1000인 이상	39.4	34.4	39.9	22.1	15.8	22.7
999인 이하	36.6	39.5	35.9	19.2	16.7	19.8

자료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각년도(미승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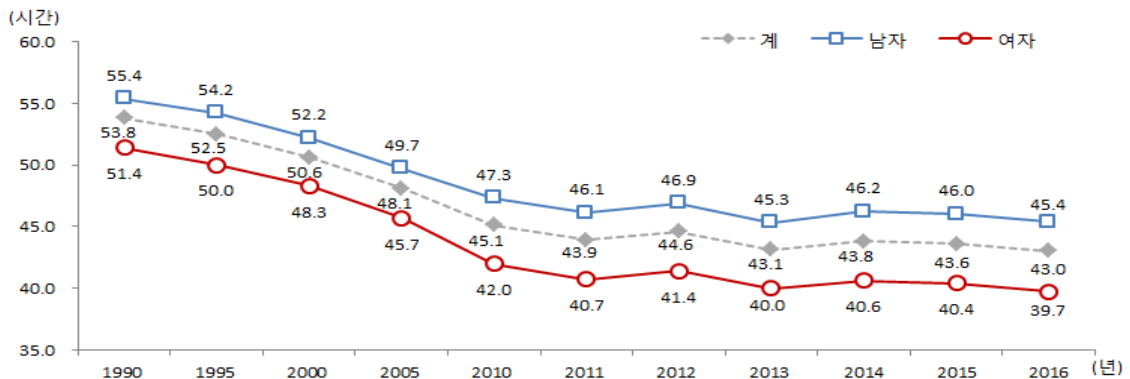
Ⅲ. 근로시간

8. 평균 근로시간과 취업자 수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 45.4시간, 여자 39.7시간으로
2015년보다 각각 36분, 42분이 감소함

- 2016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0시간으로 2015년보다 36분 감소함
 -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 45.4시간, 여자 39.7시간으로 2015년보다 각각 36분, 42분이 감소함
- 근로시간별로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47만8천명으로 남녀 각각 19만7천명(12.6%), 28만3천명(11.6%)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34만6천명으로 남녀 각각 4만2천명(0.3%), 14만6천명(1.8%) 감소함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

(단위 : 시간, 천명)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주36시간 미만			주36시간 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90	53.8	55.4	51.4	1,230	503	727	16,750	10,141	6,609
1995	52.5	54.2	50.0	1,262	493	769	19,012	11,581	7,431
2000	50.6	52.2	48.3	2,044	860	1,185	18,903	11,413	7,491
2005	48.1	49.7	45.7	2,794	1,198	1,596	19,730	11,957	7,773
2010	45.1	47.3	42.0	3,617	1,501	2,116	19,839	12,249	7,591
2011	43.9	46.1	40.7	4,534	2,034	2,500	19,290	11,941	7,350
2012	44.6	46.9	41.4	3,634	1,472	2,163	20,637	12,749	7,888
2013	43.1	45.3	40.0	4,715	2,064	2,651	19,940	12,348	7,593
2014	43.8	46.2	40.6	3,969	1,571	2,399	21,220	13,103	8,117
2015	43.6	46.0	40.4	3,998	1,563	2,435	21,535	13,252	8,283
2016	43.0	45.4	39.7	4,478	1,760	2,718	21,346	13,209	8,137
증감	-0.6	-0.6	-0.7	479.9	197.0	282.8	-188.6	-42.4	-1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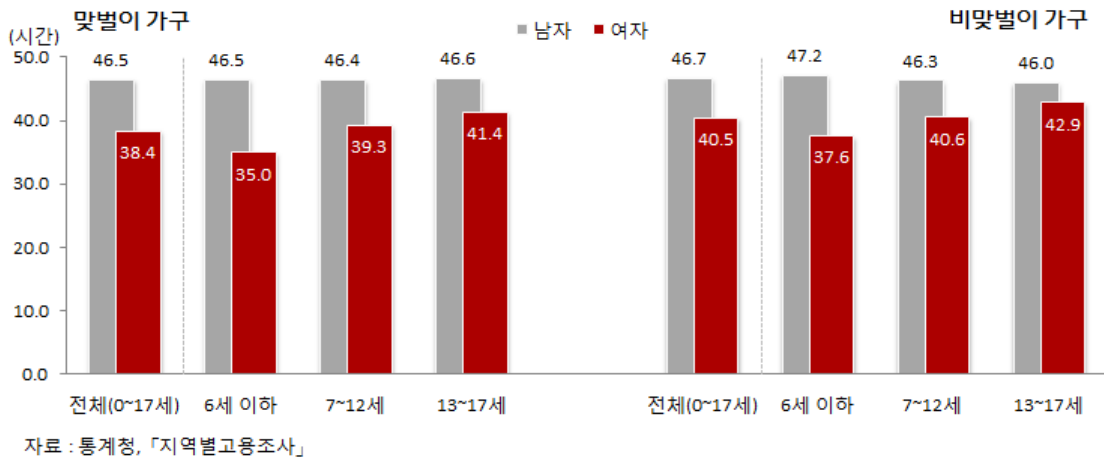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9. 자녀 연령별 부모의 근로시간

자녀가 어릴수록 부(父)와 모(母)의 근로시간은 차이가 많이 남

- 2016년 10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5시간으로 비맞벌이 가구(46.4시간) 보다 3.9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여자의 근로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하는 반면, 남자는 맞벌이 가구는 비슷하지만 비맞벌이 가구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 맞벌이·비맞벌이 모두 자녀가 어릴수록 부(父)와 모(母)의 근로시간은 차이가 많이 남
 - 맞벌이 가구의 남녀 근로시간 차이는 8.1시간으로 2015년에 비해 6분 증가함
 - 비맞벌이 가구의 남자 근로시간은 46.7시간으로 여자 40.5시간보다 6.2시간 더 많음

< 자녀 연령별 부모의 근로시간 >



【 자녀 연령별¹⁾ 부모의 근로시간 】

(단위 : 시간)

	2014				2015				2016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맞벌이 가구 ²⁾	43.4	41.5	43.6	45.2	43.2	41.3	43.6	44.8	42.5	40.7	42.8	44.0
남 자	47.3	46.9	47.2	47.7	47.2	47.0	47.1	47.5	46.5	46.5	46.4	46.6
여 자	39.5	36.1	40.0	42.6	39.2	35.6	40.0	42.2	38.4	35.0	39.3	41.4
차이(남-여)	7.8	10.8	7.2	5.1	8.0	11.4	7.1	5.3	8.1	11.5	7.1	5.2
비맞벌이 가구 ³⁾	47.1	47.6	46.9	46.0	47.1	47.7	46.7	46.1	46.4	46.9	45.9	45.6
남 자	47.4	47.9	47.2	46.3	47.5	48.1	47.1	46.5	46.7	47.2	46.3	46.0
여 자	42.3	40.1	42.4	44.1	41.1	39.0	40.9	43.1	40.5	37.6	40.6	42.9
차이(남-여)	5.1	7.8	4.8	2.2	6.4	9.1	6.2	3.4	6.2	9.6	5.7	3.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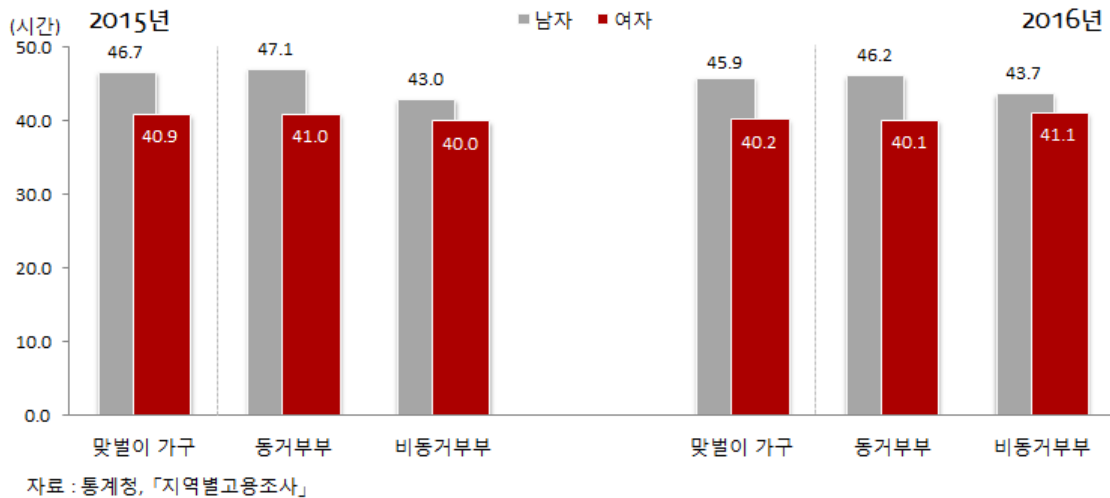
- 주 : 1)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
 2)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3) 가구주와 배우자 중 어느 한쪽만 취업자인 가구

10. 맞벌이 가구 근로시간

맞벌이 가구 중 같이 사는 남자가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 2.5시간 더 일함

- 2016년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는 45.9시간, 여자는 40.2시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7시간 많음
 - 맞벌이 가구 중 남자의 근로시간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 46.2시간, 같이 살지 않는 경우 43.7시간으로, 동거부부 남자의 근로시간이 2.5시간 더 많음
 - 동거부부의 경우 남자의 근로시간이 2.5시간 길고, 여자는 비동거인 경우 1.0시간 더 많음
 - 동거부부의 경우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나, 비동거부부의 근로시간은 남녀 모두 증가하였음
- 동거여부별 남녀 근로시간 차이는 동거부부가 6.1시간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비동거부부는 2.6시간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여 차이가 더 벌어짐

<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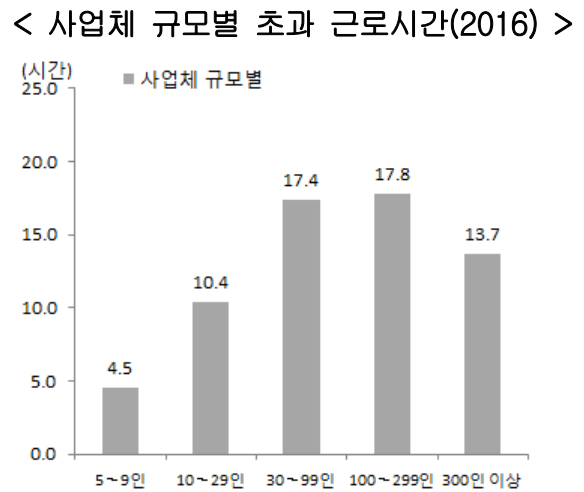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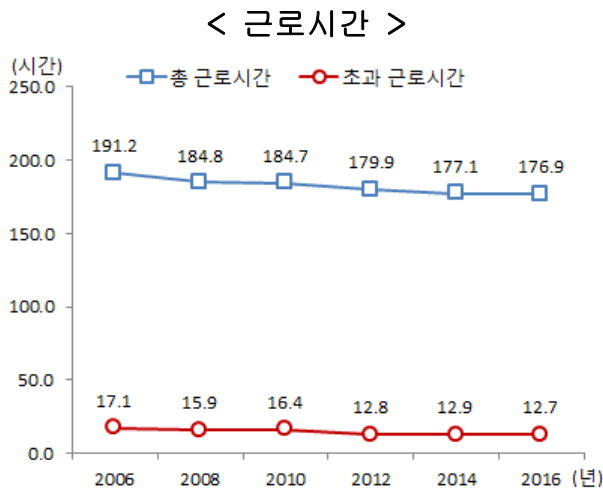
	2014				2015				2016			
	전체	동거부부 (A)	비동거부부 (B)	차이 (A-B)	전체	동거부부 (A)	비동거부부 (B)	차이 (A-B)	전체	동거부부 (A)	비동거부부 (B)	차이 (A-B)
남 자	46.8	47.1	44.5	2.6	46.7	47.1	43.0	4.1	45.9	46.2	43.7	2.5
여 자	41.4	41.3	41.8	-0.5	40.9	41.0	40.0	1.0	40.2	40.1	41.1	-1.0
차이(남-여)	5.4	5.8	2.7	-	5.8	6.1	3.0	-	5.7	6.1	2.6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11. 초과 근로

2016년 총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10년 전보다 14.3시간 감소하고, 초과 근로시간도 12.7시간으로 10년 전보다 4.4시간 감소함

- 2016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9시간이며, 그 중 초과 근로시간은 12.7시간으로 나타남
- 10년 전과 비교하면, 총 근로시간은 14.3시간 감소하였으며, 초과 근로시간도 4.4시간 감소함
- 300인 미만의 사업체 규모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초과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100~299인 규모 사업체가 17.8시간으로 가장 많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13.7시간으로 감소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초과 근로 현황 】

(단위 : 시간)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근로시간 ¹⁾		191.2	184.7	182.1	179.9	178.1	177.1	178.4	176.9
초과 근로시간 ²⁾		17.1	16.4	13.6	12.8	12.5	12.9	12.8	12.7
사업체 규모별	5~9인	5.5	5.4	3.7	4.0	4.4	4.6	4.4	4.5
	10~29인	10.6	11.7	9.1	8.9	9.2	9.9	9.9	10.4
	30~99인	20.6	21.9	17.8	16.7	16.1	16.3	16.8	17.4
	100~299인	25.8	23.4	19.0	18.6	18.3	19.1	18.1	17.8
	300인 이상	22.9	17.8	18.2	16.2	14.9	15.6	15.4	13.7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2)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 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총계

12. 휴가

평균 휴가일수는 남자 6.1일, 여자 5.7일로 남자가 0.4일 더 사용함

- 2016년 지난 1년간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64.2%로 2014년(62.3%)보다 1.9%p 증가하였고, 평균 휴가일수는 5.9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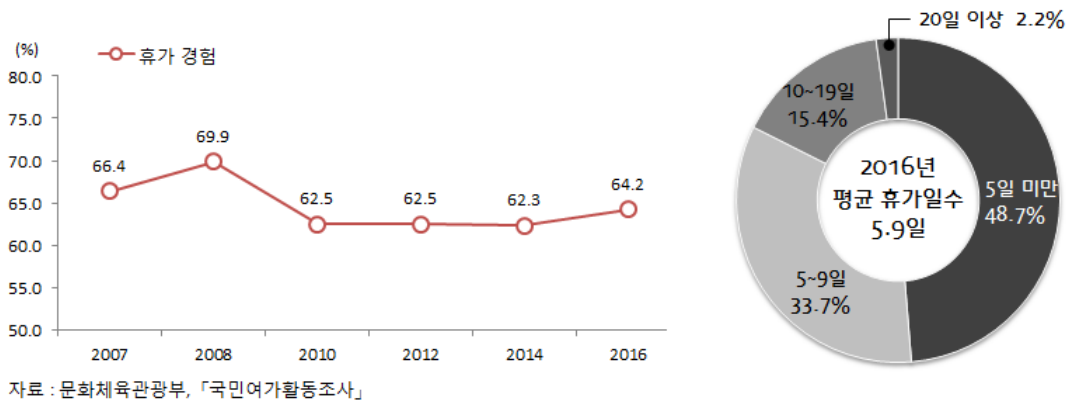
* 휴가 :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사업장(직장) 또는 학교를 1일 이상 쉬는 것으로 하계휴가, 연차휴가 등을 의미함

- 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남자가 66.5%, 여자가 61.9%로 남자가 여자보다 휴가 경험 비율이 4.6%p 높음

- 평균 휴가일수는 남자가 6.1일, 여자가 5.7일로 남자가 0.4일 더 사용하였음

- 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0대가 8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대(76.8%), 20대(71.4%) 순으로 나타남

< 휴가 경험 및 일수 >



【 휴가 경험 및 일수¹⁾ 】

	2007	2008	2010	2012	2014	2016
휴가 경험(%)	66.4	69.9	62.5	62.5	62.3	64.2
휴가 일수(일)	-	-	7.5	5.1	6.0	5.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주 : 1) 지난 1년 동안

【 성별·연령별 휴가 경험 】

(단위 : %)

	휴가 경험자	5일 미만	5~9일	10~19일	20일 이상	평균(일)
2016	64.2	48.7	33.7	15.4	2.2	5.9
남자	66.5	48.0	33.6	15.9	2.5	6.1
여자	61.9	49.3	33.9	14.9	1.9	5.7
15~19세	51.1	51.4	27.7	16.3	4.6	7.0
20대	71.4	47.3	31.6	16.7	4.4	6.6
30대	80.4	45.8	37.3	15.1	1.9	6.0
40대	76.8	48.6	34.6	15.7	1.2	5.7
50대	66.6	49.4	34.3	14.6	1.7	5.7
60대	45.8	53.2	28.2	16.7	1.9	5.5
70세 이상	29.4	52.9	35.5	10.7	0.9	4.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13. 여가시간

여가시간은 평일 3.1시간, 휴일 5시간, 현재보다 한 시간 더 활용하기 희망함

- 2016년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1시간, 휴일 5시간으로 2014년보다 각각 30분, 48분 감소함
-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일은 평균 4시간, 휴일은 평균 6시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가시간보다 각각 54분, 1시간 더 활용하기를 희망함

【 하루 평균 여가시간 】

(단위 : 시간)

	평일		휴일	
	현재	희망	현재	희망
2006	3.1	4.0	5.5	6.4
2008	3.0	4.0	6.5	8.2
2010	4.0	5.1	7.0	8.5
2012	3.3	4.4	5.1	6.3
2014	3.6	4.4	5.8	6.9
2016	3.1	4.0	5.0	6.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 지난 1년 동안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평일 53.3%, 휴일 66.9%이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평일과 휴일 각각 18.1%, 10.4%로 나타남
- 여가시간 충분함에 대한 만족도는 평일(4.5점)이 휴일(4.9점)보다 낮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의 충분함에 대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여가시간 충분도(2016) 】

(단위 : %)

	평 일								휴 일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매우 부족	1.6	2.5	1.4	2.6	2.1	1.6	0.7	0.1	1.2	0.9	0.6	1.9	1.9	1.3	0.6	0.3
부족	4.0	8.1	3.0	5.4	5.0	3.7	2.5	0.7	2.2	3.2	1.7	3.2	2.7	2.3	1.7	0.4
약간 부족	12.5	17.4	13.2	16.1	15.4	11.7	8.2	3.5	7.0	11.1	5.4	8.6	9.5	6.5	5.8	1.7
보통	28.6	30.7	31.4	30.6	29.7	32.0	24.8	16.2	22.7	24.7	21.2	26.3	25.8	23.1	21.3	12.5
약간 충분	31.9	28.2	32.3	29.0	33.5	32.2	34.1	32.1	36.4	35.7	41.0	35.7	35.9	39.3	31.8	32.2
충분함	17.1	11.1	15.6	14.5	12.5	16.0	22.3	32.1	23.9	18.6	24.0	19.7	20.4	23.0	28.8	36.8
매우 충분	4.3	2.0	3.1	1.8	1.7	2.7	7.4	15.4	6.6	5.7	6.1	4.6	3.7	4.5	10.0	16.1
평균 ¹⁾ (점)	4.5	4.2	4.5	4.3	4.3	4.5	4.9	5.4	4.9	4.7	5.0	4.7	4.7	4.8	5.1	5.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주 : 1) 1~7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IV. 보 육

14.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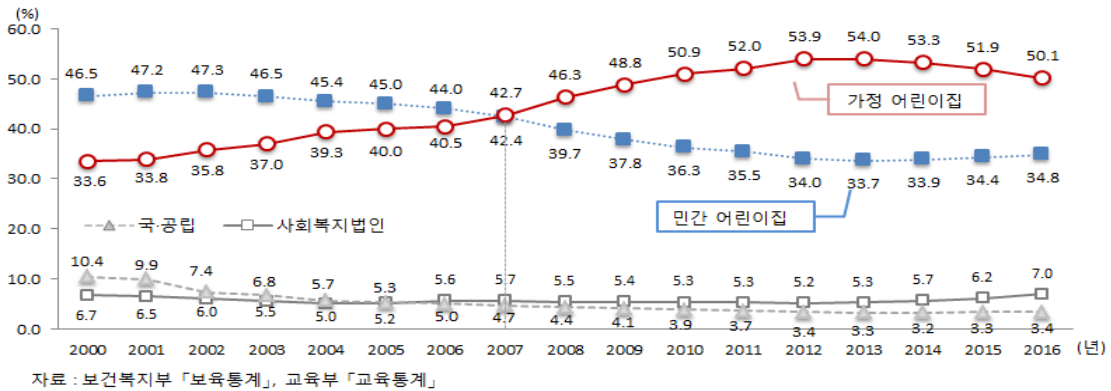
유치원과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하고 가정, 민간 어린이집은 감소함

- 2016년 전체 어린이집 수는 41,084개소로 전년(42,517개소)보다 1,433개소 감소함
 - 어린이집은 가정시설 어린이집이 5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민간(34.8%), 국·공립(7.0%), 사회복지법인(3.4%) 순임
 - 국·공립 어린이집은 230개(8.7%), 직장 어린이집은 163개(20.8%) 증가하고, 가정 어린이집은 1,476개(-6.7%), 민간 어린이집은 310개(-2.1%) 감소하였음
 - 가정 어린이집 수는 2014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전체 유치원 수는 8,987개소로 전년(8,930개소)보다 57개소 증가함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임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시설 비중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

(단위 : 개소, %)

	어린이집 수								유치원 수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국·공립	사립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8,388	4,501	3,887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8,424	4,502	3,922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8,538	4,525	4,013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8,678	4,577	4,101
2014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8,826	4,619	4,207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8,930	4,678	4,252
2016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8,987	4,696	4,291
비 중	100.0	7.0	3.4	2.0	34.8	50.1	0.4	2.3	100.0	52.3	47.7
증감률	-3.4	8.7	-0.8	-3.6	-2.1	-6.7	1.3	20.8	0.6	0.4	0.9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각년도

15. 보육시설 이용 및 가정양육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증가(2만명)하고 가정양육 아동 수는 감소(7.6만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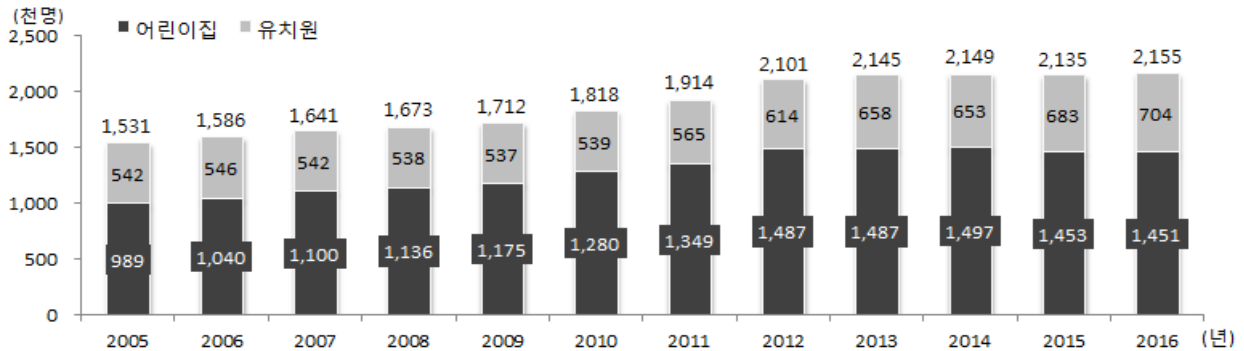
□ 2016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215만5천명이며, 그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4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천명 감소한 반면, 유치원은 70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1천명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어린이집은 만 2세반까지의 아동이 절반 이상인 58.3%를 차지하며, 유치원은 만 4세반 이상 아동이 75.1%를 차지함

□ 2016년 가정양육 아동* 수는 93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7만6천명 감소하였으며, 주로 23개월까지의 아동(71.7%)이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양육 아동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제공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아동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 보육시설 이용 및 가정양육 아동 수 】

(단위 : 천명, %)

	시설이용 아동 수										가정양육 아동 수 ²⁾				
	계	어린이집 ¹⁾					유치원				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개월~취학전
		소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이상	소계	만3세반 이하	만4세반	만5세반 이상					
2005	1,531	989	34	89	179	687	542	75	177	290	-	-	-	-	-
2010	1,818	1,280	125	229	332	594	539	111	181	246	52	24	27	-	-
2011	1,914	1,349	147	250	343	609	565	134	197	234	90	37	38	15	-
2012	2,101	1,487	178	322	373	615	614	131	230	253	103	38	44	18	2
2013	2,145	1,487	148	326	401	612	658	146	234	278	1,060	386	347	145	183
2014	2,149	1,497	139	342	410	606	653	156	228	268	1,012	383	310	145	174
2015	2,135	1,453	137	308	419	588	683	172	249	261	1,009	386	310	132	181
2016	2,155	1,451	141	318	387	605	704	175	253	276	933	363	306	117	147
비중	-	100.0	9.7	21.9	26.6	41.7	100.0	24.8	35.9	39.2	100.0	38.9	32.8	12.6	15.7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교육부 「교육통계」 각년도

주 : 1) 어린이집 반편성은 0세반 아동은 전년도 1.1. 이후 출생아를 함께 편성, 1세반부터는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12.31. 출생아)를 함께 편성

2)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으로 2009년 7월부터 도입, 2013년부터는 0~5세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 지원 포함

16.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용

2016년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의 비율은 81.5%로
2015년 52.9%보다 28.6%p 증가함

-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1,153개소 중 81.5%(940개소)가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위탁보육하고 있음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2016년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의 비율은 81.5%로 2015년 52.9%보다 28.6%p 증가함
 - 2016년에는 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자체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대폭 개선됨
 - * 이행명령 부과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 시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 ** 이행강제금 부과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사업장 특성, 비용 부담 등을 주로 꼽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

(단위 : 개소, %)

	의무사업장 (A+B)	이행(A)								미이행(B)	
		계	비율	직접 설치		수당 지급 ¹⁾		위탁		미이행(B)	비율
				직접 설치	비율	수당 지급 ¹⁾	비율	위탁	비율		
2006	775	365	47.1	199	25.7	132	17.0	34	4.4	410	52.9
2010	833	578	69.4	312	37.5	208	25.0	58	7.0	255	30.6
2015	1,143	605	52.9	578	50.5	-	-	27	2.4	538	47.1
2016	1,153	940	81.5	729	63.2	-	-	211	18.3	213	18.5

자료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 실태조사」 각년도

주 : 2006~2010년(12.31. 기준), 2011년(6.30. 기준), 2012년(9.30. 기준), 2013~2016년(12.31. 기준)

1) 2015년부터 폐지됨

【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2016) 】

(단위 : 개소, %)

계	장소 확보 어려움	보육 대상 부족	설치 비용 부담	운영 비용 부담	정보 부족	강제 규정 미약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300 (100.0)	68 (22.7)	58 (19.3)	52 (17.3)	50 (16.7)	6 (2.0)	1 (0.3)	65 (21.7)

자료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 실태조사」 2016

주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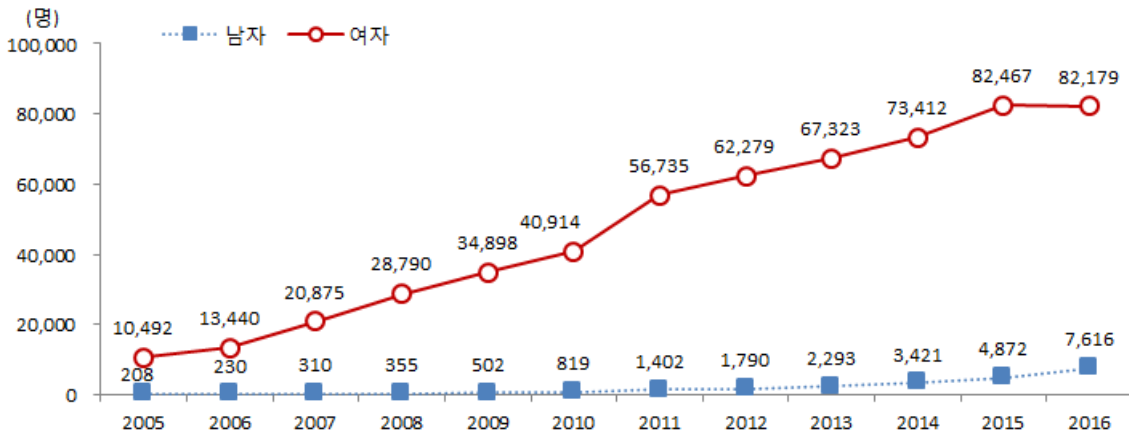
V. 사회제도

17. 육아휴직자 수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전년보다 남자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함

- 2016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9,795명으로 전년(8만7,339명)보다 2,456명이 늘어나서 2.8% 증가함
- 성별로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는 7,616명으로 전년보다 56.3%(2,744명) 증가한 반면, 여자는 8만2,179명으로 전년보다 0.3%(288명) 감소함

< 연도별 육아휴직자 현황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 성별 육아휴직자¹⁾ 】

(단위 : 명, %, %p)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전체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2.8
남자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56.3
구성비	1.9	1.7	1.5	1.2	1.4	2.0	2.4	2.8	3.3	4.5	5.6	8.5	2.9
여자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0.3
구성비	98.1	98.3	98.5	98.8	98.6	98.0	97.6	97.2	96.7	95.5	94.4	91.5	-2.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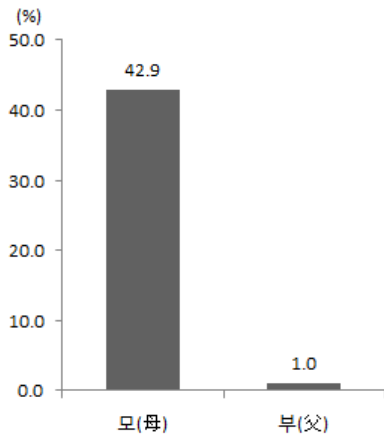
주 : 1) 연도별 신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참고 육아휴직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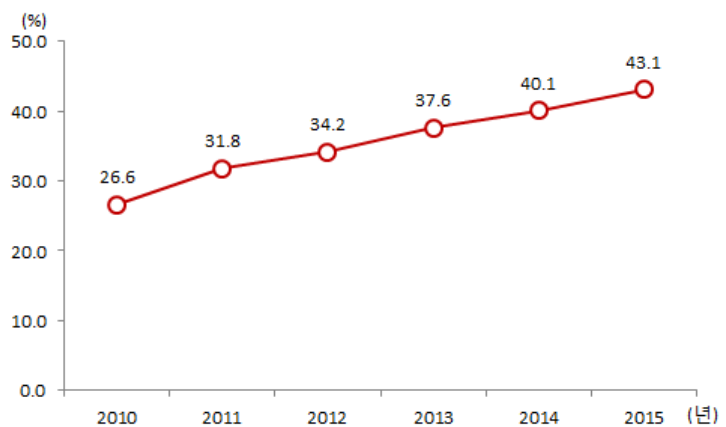
0~5세 자녀를 둔 모(母)의
2010~2015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률은 42.9%임

- 2010~2015년 기간 동안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은 모(母)가 42.9%이며, 부(父)는 1.0%로 나타남
 -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로 모(母)가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26.6%에서 2015년에는 43.1%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사용률(0~5세)>



<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 통계청 「종사자DB」, 「출생DB」, 「영아사망DB」

【 육아휴직 사용률¹⁾】

(단위 : %)

0~5세 ²⁾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모(母)	부(父)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2.9	1.0	26.6	31.8	34.2	37.6	40.1	43.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 통계청 「종사자DB」, 「출생DB」, 「영아사망DB」를 이용한 시산자료로 이용 자료에 따라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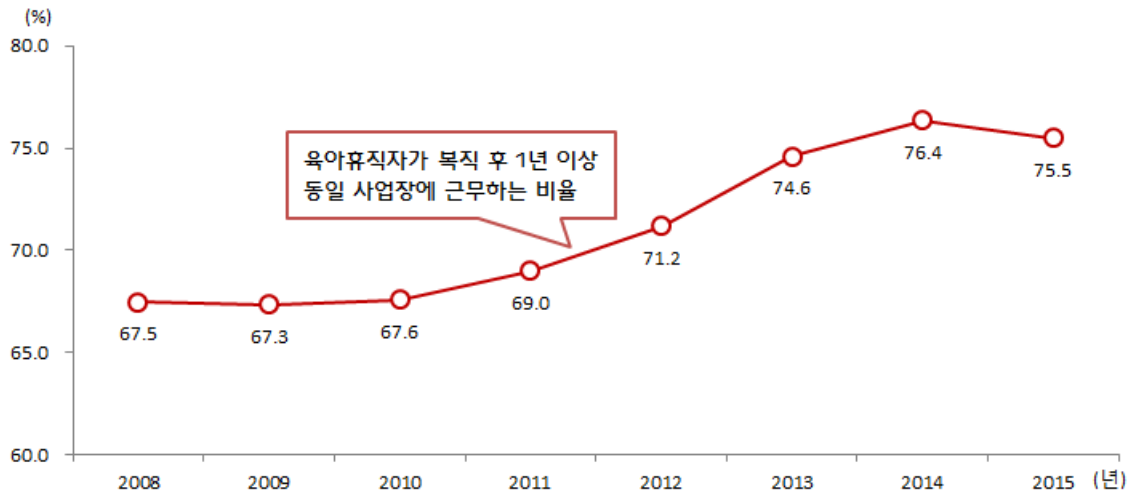
- 주 : 1) 자녀의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 2) 시산 기간(2010~2015)에 따른 연령임. 육아휴직 대상인 만 8세까지의 사용률은 향후 2018년 자료까지 기간 누적 시 산출 가능

18.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육아휴직 사용자 4명 중 3명(75.5%)은 동일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음

- 2015년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은 75.5%로 전년보다 0.9%p 소폭 감소함
-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직한 근로자는 68,383명으로 이 중 51,619명이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

(단위 : %, %p,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67.5	67.3	67.6	69.0	71.2	74.6	76.4	75.5
증 감	-	-0.2	0.2	1.4	2.2	3.4	1.8	-0.9
육아휴직 후 복직자	19,238	20,342	27,521	35,457	46,262	53,688	58,694	68,383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12,982	13,696	18,596	24,466	32,933	40,053	44,817	51,61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각년도

주 : 당해년도에 육아휴직자 기준으로 '16년 종료자는 1년이 경과한 '18년 초에 측정 가능

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함

- 2016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2,761명으로 전년보다 700명(34.0%) 증가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육아휴직과 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주 15~3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

- 성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남자는 378명, 여자는 2,383명으로 2015년 보다 남녀 모두 증가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남자는 매년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사용자의 13.7%로 여자 사용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

(단위 : 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증감률
계	39	437	736	1,116	2,061	2,761	700	34.0
남 자	2	22	44	84	170	378	208	122.4
여 자	37	415	692	1,032	1,891	2,383	492	26.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각년도

주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수급자 기준. 급여 지급은 '11.10월 시작

- 2017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데 사업체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47.5%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를 꼽았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애로사항 】

(단위 : %)

		계 ¹⁾	단축근로자 관리 어려움	단축 근로자 업무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	동료직원 업무량 증가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움	회의·팀워크 업무 수행 어려움 발생	잘 모름 ²⁾	사례 없음
2015		100.0	5.3	7.9	42.4	11.6	4.0	4.3	24.5
2016		100.0	6.1	9.0	39.4	15.6	4.0	5.0	20.9
2017		100.0	4.2	10.4	47.5	14.8	2.1	8.6	12.5
사업체 규모 별	5 ~ 9 인	100.0	2.5	10.0	50.0	15.0	0.0	5.0	17.5
	10 ~ 29 인	100.0	2.1	10.4	42.7	13.5	3.1	11.5	16.7
	30 ~ 99 인	100.0	5.3	6.3	48.4	13.7	3.2	11.6	11.6
	100 ~ 299 인	100.0	2.5	12.5	51.3	16.3	1.3	7.5	8.8
	300인 이상	100.0	8.1	13.5	47.3	16.2	1.4	4.1	9.5

자료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각년도(미승인통계)

주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체

2) 2016년 이전은 '별 어려움 없음'으로 조사, 2016년은 '단축제도에 적합한 직무 설계의 어려움' 포함

20. 가족친화 인증제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1,828개로 전년보다 34.1% 증가함

□ 2016년 말 기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수는 1,828개로 전년(1,363개)보다 34.1%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기업 285개, 중소기업 983개, 공공기관 560개로 나타남

○ 2016년에 신규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수는 523개이며, 중소기업이 314개(60.0%), 공공기관 156개(29.8%), 대기업 53개(10.1%)임

○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로 최근 3년 간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인증을 받음

* 가족친화 인증제도 :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730개로 39.9%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03개)」, 「도매 및 소매업(139개)」 순으로 나타남

【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수 】

(단위 : 개, %)

	총 인증 기업(기관) 현황					인증이 유효한 기업(기관) 현황										
	2014	2015	2016	비율	증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율	
계	956	1,363	1,828	100.0	34.1	9	14	20	80	84	227	444	427	523	100.0	
대 기업	223	258	285	15.6	10.5	3	5	6	23	24	59	77	35	53	10.1	
중소기업	428	702	983	53.8	40.0	-	3	4	17	13	83	257	292	314	60.0	
공공기관	305	403	560	30.6	39.0	6	6	10	40	47	85	110	100	156	29.8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 각년도

【 산업별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수 】

(단위 : 개, %)

계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도매 및 소매업	출산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운송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기타
1,828 (100.0)	730 (39.9)	303 (16.6)	139 (7.6)	122 (6.7)	107 (5.9)	102 (5.6)	57 (3.1)	43 (2.4)	39 (2.1)	32 (1.8)	29 (1.6)	25 (1.4)	100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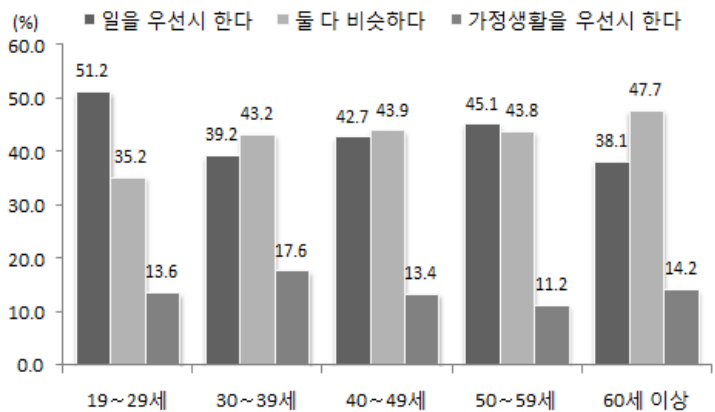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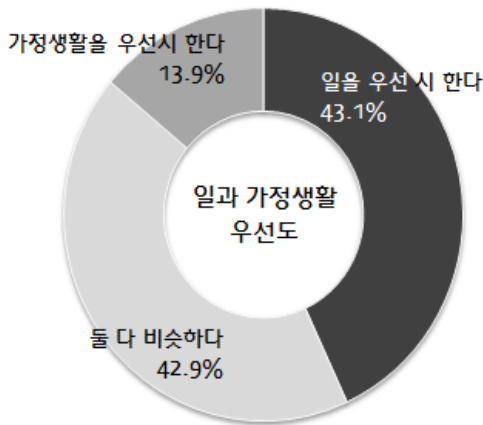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 2016

21.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일과 가정이 비슷하다는 경우와 가정생활이 우선이라는 사람은 증가함

- 2017년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중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43.1%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음
-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8.5%p 증가하고, 가정생활이 우선이라는 사람은 2.0%p 증가함
- 남자는 일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49.9%로 높지만, 여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48.4%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정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9~29세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201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19세 이상) 】

(단위 : %)

	계 ¹⁾	일을 우선시 한다			둘 다 비슷하다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		
		주요	대체로	주요		대체로		
2015	100.0	53.7	25.7	28.0	34.4	11.9	3.5	8.5
남 자	100.0	61.7	29.7	32.0	29.0	9.4	2.8	6.5
여 자	100.0	42.3	20.1	22.2	42.1	15.6	4.4	11.2
2017	100.0	43.1	18.8	24.4	42.9	13.9	2.8	11.2
남 자	100.0	49.9	21.7	28.2	39.0	11.1	2.2	8.8
여 자	100.0	33.7	14.7	19.0	48.4	17.9	3.5	14.4
19~29세	100.0	51.2	20.9	30.3	35.2	13.6	3.9	9.7
30~39세	100.0	39.2	14.7	24.6	43.2	17.6	3.4	14.2
40~49세	100.0	42.7	19.3	23.4	43.9	13.4	2.2	11.2
50~59세	100.0	45.1	21.1	24.0	43.8	11.2	2.0	9.1
60세 이상	100.0	38.1	17.9	20.2	47.7	14.2	2.7	11.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22. 일·가정 양립제도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비율은 「출산(전후)휴가제」가 8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60.9%)」, 「육아휴직제(59.1%)」 순임

- 2017년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비율은 「출산(전후)휴가제」가 8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60.9%)」, 「육아휴직제(59.1%)」 순으로 나타남

【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

(단위 : %)

		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
2015		80.3	61.9	58.2	30.2	25.7
2016		80.2	60.8	58.3	37.8	27.8
2017		81.1	60.9	59.1	38.5	26.5
사업체 규모별	5~9인	63.4	39.1	33.8	14.1	5.6
	10~29인	77.9	53.9	46.1	35.4	23.6
	30~99인	92.8	73.2	76.1	45.5	27.8
	100~299인	94.1	80.0	86.7	59.3	49.6
	300인 이상	98.0	90.1	93.1	73.3	59.4

자료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각년도(미승인통계)

- 2017년 임금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그 중 「출산(전후)휴가제(81.7%)」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육아휴직제(79.4%)」, 「배우자 출산휴가제(71.1%)」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음
-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50% 미만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제도는 상대적으로 육아와 관련이 있는 30~40대의 인지도가 높음

【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

(단위 : %)

		알고 있다 ¹⁾						
		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보육지원	가족돌봄휴직제	유연근무제
2015		80.7	68.6	77.3	44.1	56.5	36.2	47.1
	20~29세	77.3	62.9	73.0	38.9	49.2	30.5	44.6
	30~39세	87.2	77.0	84.5	51.4	61.2	38.9	52.6
	40~49세	84.7	76.1	82.1	48.8	62.5	40.9	51.6
2017		81.7	71.1	79.4	43.2	57.8	35.6	48.7
	20~29세	76.7	64.4	76.0	37.5	49.9	29.0	44.6
	30~39세	87.0	78.9	85.5	49.8	62.4	37.3	55.5
	40~49세	86.1	78.5	83.8	49.2	64.9	42.4	55.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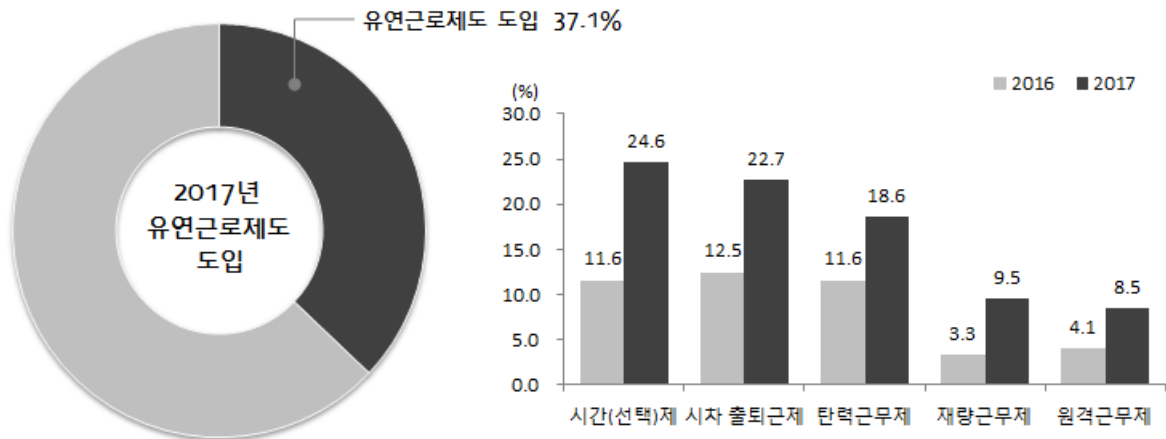
주 : 1) 지난 1주일 동안 임금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23. 유연근로제도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는 37.1%로 전년보다 15.2%p 증가함

- 2017년 일·가정 양립제도의 하나인 유연근로제도 중 시차 출퇴근제 등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37.1%로 전년(21.9%)보다 크게 증가하여 유연근로제도가 확산되는 추세임
-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유연근무제도 도입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제도별로는 「시간(선택)제」 도입률이 24.6%로 가장 높고, 「시차 출퇴근제」와 「탄력근무제」는 각각 22.7%, 18.6%로 나타남
- 5개 유형의 유연근로제도 도입 비율은 전년보다 모두 증가함

<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



자료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

(단위 : %)

		도입 비율 ¹⁾	시간 (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2015 ²⁾		22.0	11.3	12.7	9.2	5.3	3.4
2016		21.9	11.6	12.5	11.6	3.3	4.1
2017		37.1	24.6	22.7	18.6	9.5	8.5
사업체 규모별	5~9인	31.0	19.4	22.9	16.9	9.2	8.8
	10~29인	33.6	23.6	18.8	14.8	7.7	8.9
	30~99인	41.6	26.8	20.6	21.1	13.4	8.6
	100~299인	40.7	25.9	28.1	23.0	8.1	6.7
	300인 이상	49.5	35.6	29.7	22.8	8.9	8.9

자료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각년도(미승인통계)

주 : 1) 조사대상 사업체 중 유연근로제 5개 유형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재택근무제, 이동근무제' 포함하여 총 7개 유형으로 질문한 결과임

통 계 표

I. 인 구

1. 가족형태별 가구구성 / 34
2. 맞벌이 가구 / 35
3.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 36

II. 고 용

4. 혼인상태별, 성별 고용동향 / 37
5. 여성 경력단절 규모 및 사유
 - 5-1. 여성 경력단절 규모 / 38
 - 5-2. 여성 경력단절 사유 / 39
6.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및 사유 / 40
7.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 41

III. 근로시간

8. 평균 근로시간과 취업자 수 / 42
9. 자녀 연령별 부모의 근로시간 / 43
10. 맞벌이 가구 근로시간 / 44
11. 초과 근로 / 45
12. 휴가 / 46
13. 여가시간
 - 13-1. 하루 평균 여가시간 / 47
 - 13-2. 여가시간 충분도 / 48

IV. 보 육

14.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 49
15. 보육시설 이용 및 가정양육
 - 15-1.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 50
 - 15-2. 가정양육 아동 수 / 51
16.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율 / 52

V. 사회제도

17. 육아휴직자 수 / 53
18.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 54
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19-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 55
 - 19-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애로사항 / 56
20. 가족친화 인증제도 / 57
21.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58
22. 일·가정 양립제도
 - 22-1.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 59
 - 22-2. 국민의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 60
23. 유연근로제도 / 61

1. 가족형태별 가구구성

(단위 : 천 가구, %)

	혈연가구 ¹⁾							
		계	부부	부부+ 미혼자녀 ²⁾	한부모+ 미혼자녀	조부모+ 미혼손자녀 ³⁾	부부+ 양(편)친+ 미혼자녀	기타
1995	11,133	100.0	12.6	59.8	8.6	0.3	7.9	10.8
2000	11,928	100.0	14.8	58.6	9.4	0.4	6.8	10.0
2005	12,491	100.0	18.1	54.2	11.0	0.5	5.7	10.6
2010	12,995	100.0	20.6	49.8	12.3	0.9	5.0	11.4
2015	13,693	100.0	21.8	45.5	15.0	0.8	4.2	12.6
2016	13,701	100.0	21.9	45.7	14.6	0.8	4.2	12.9
가구주 연령별								
30세 미만	340	100.0	15.3	26.6	19.3	3.7	1.2	34.0
30~39세	2,211	100.0	13.5	59.6	13.5	0.3	3.9	9.3
40~49세	3,578	100.0	6.5	61.5	18.1	0.0	5.2	8.6
50~59세	3,702	100.0	17.3	50.1	16.9	0.2	4.4	11.3
60세 이상	3,869	100.0	45.8	20.7	9.4	2.2	3.4	18.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주 : 1) 혈연가구는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 가구 제외

2)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포함

3)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포함

2. 맞벌이 가구

(단위 : 천 가구, %)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¹⁾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²⁾			비율	
	< 2013 >			< 2014 >		
전 체	11,780	5,055	42.9	11,825	5,186	43.9
성별						
남 자	10,549	4,569	43.3	10,538	4,611	43.8
여 자	1,231	486	39.5	1,287	575	44.7
교육정도별						
중졸이하	2,452	997	40.6	2,387	983	41.2
고 졸	4,420	1,960	44.3	4,440	2,015	45.4
대졸이상	4,907	2,099	42.8	4,999	2,188	43.8
연령별						
15~29세	188	70	37.4	174	65	37.4
30~39세	2,094	851	40.6	2,015	848	42.1
40~49세	3,250	1,650	50.8	3,191	1,654	51.8
50~59세	3,224	1,609	49.9	3,287	1,685	51.3
60세이상	3,023	875	29.0	3,159	934	29.6
	< 2015 >			< 2016 >		
전 체	11,858	5,206	43.9	11,884	5,531	44.9
성별						
남 자	10,528	4,623	43.9	10,506	4,700	44.7
여 자	1,330	583	43.8	1,378	631	45.8
교육정도별						
중졸이하	2,347	952	40.6	2,317	923	39.8
고 졸	4,401	1,973	44.8	4,396	2,030	46.2
대졸이상	5,109	2,281	44.6	5,170	2,378	46.0
연령별						
15~29세	163	62	37.9	154	59	38.2
30~39세	1,952	831	42.6	1,888	843	44.6
40~49세	3,116	1,602	51.4	3,046	1,606	52.7
50~59세	3,313	1,713	51.7	3,315	1,775	53.5
60세이상	3,314	999	30.1	3,480	1,049	30.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주 : 1)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2)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3.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단위 : 천 가구, %)

	2014			2015			2016		
	유배우자 가구 ¹⁾	맞벌이 가구 ²⁾	비율 ³⁾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유배우자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전체 (0~17세)	4,838	2,286	47.3	4,701	2,222	47.3	4,617	2,238	48.5
자녀연령별									
6세 이하	2,131	797	37.4	2,084	794	38.1	2,052	815	39.7
7~12세	1,352	696	51.4	1,315	678	51.6	1,296	682	52.7
13~17세	1,335	793	58.6	1,303	750	57.6	1,270	741	58.3
자녀수별									
1명	2,119	1,022	48.2	2,082	994	47.7	2,079	1,015	48.8
2명	2,305	1,090	47.3	2,211	1,056	47.7	2,139	1,047	48.9
3명 이상	413	175	42.3	407	172	42.2	399	177	44.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주 : 1)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

2)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3)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4. 혼인상태별 · 성별 고용동향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미혼	유배우	기타 ¹⁾		미혼	유배우	기타		미혼	유배우	기타	
< 2011 >												
경제활동참가율	61.1	51.6	68.1	44.6	73.1	52.2	84.1	65.0	49.7	50.9	52.0	38.8
고용률	59.1	47.8	66.8	42.9	70.5	48.0	82.3	61.2	48.1	47.7	51.0	37.7
실업률	3.4	7.3	2.0	3.8	3.6	8.2	2.1	5.8	3.1	6.2	1.9	2.9
< 2012 >												
경제활동참가율	61.3	51.7	68.3	45.4	73.3	52.2	84.2	65.7	49.9	51.1	52.2	39.4
고용률	59.4	48.0	67.0	43.8	70.8	48.2	82.5	62.4	48.4	47.9	51.3	38.4
실업률	3.2	7.0	1.9	3.5	3.4	7.7	2.0	5.1	3.0	6.2	1.8	2.7
< 2013 >												
경제활동참가율	61.5	51.7	68.6	45.9	73.2	52.6	84.2	65.5	50.2	50.5	52.8	40.1
고용률	59.5	47.8	67.4	44.6	70.8	48.3	82.7	63.0	48.8	47.2	52.0	39.1
실업률	3.1	7.5	1.7	2.8	3.3	8.1	1.8	3.8	2.9	6.6	1.5	2.4
< 2014 >												
경제활동참가율	62.4	53.6	69.2	47.3	74.0	54.4	84.6	65.8	51.3	52.5	53.6	41.3
고용률	60.2	49.2	67.8	45.7	71.4	49.7	83.1	62.7	49.5	48.7	52.4	40.2
실업률	3.5	8.1	1.9	3.4	3.6	8.8	1.8	4.7	3.5	7.3	2.1	2.7
< 2015 >												
경제활동참가율	62.6	55.1	68.8	47.5	73.8	55.9	83.9	64.9	51.8	54.2	53.6	41.8
고용률	60.3	50.8	67.4	45.8	71.1	51.2	82.3	61.8	49.9	50.4	52.4	40.6
실업률	3.6	7.8	2.1	3.6	3.7	8.5	1.9	4.9	3.6	7.0	2.2	2.9
< 2016 >												
경제활동참가율	62.8	56.3	68.8	47.0	73.9	57.1	83.6	63.8	52.1	55.3	53.8	41.4
고용률	60.4	51.5	67.5	45.4	71.1	52.0	82.0	60.5	50.2	50.9	52.8	40.4
실업률	3.7	8.5	1.9	3.4	3.8	8.9	1.9	5.1	3.6	7.9	2.0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1) '이혼, 사별' 포함

5-1. 여성 경력단절 규모

(단위 : 천명, %)

	15~54세 기혼여성(A)		비취업 여성 ¹⁾ (B)			경력단절 여성 ²⁾ (C)			
	구성비		구성비	비율 (B/A)	구성비	구성비	비율 (C/A)	비율 (C/B)	
2014	9,561	-	3,894	-	40.7	2,139	-	22.4	54.9
2015	9,420	-	3,815	-	40.5	2,053	-	21.8	53.8
2016	9,273	-	3,688	-	39.8	1,906	-	20.6	51.7
2017	9,053	100.0	3,535	100.0	39.1	1,812	100.0	20.0	51.3
< 연령별 >									
15~29세	464	5.1	239	6.7	51.4	147	8.1	31.6	61.5
30~39세	2,746	30.3	1,288	36.4	46.9	928	51.2	33.8	72.1
40~49세	3,836	42.4	1,345	38.0	35.0	590	32.6	15.4	43.9
50~54세	2,007	22.2	665	18.8	33.1	147	8.1	7.3	22.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4월

주 : 1) 비취업여성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함

2)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5-2. 여성 경력단절 사유

(단위 : 천명, %)

	경력단절 사유											
	전체	비율	결혼	비율	임신 출산	비율	육아 ¹⁾	비율	자녀 교육 ²⁾	비율	가족 돌봄	비율
2014	2,139	100.0	822	38.4	436	20.4	627	29.3	93	4.3	162	7.6
2015	2,053	100.0	757	36.9	501	24.4	614	29.9	80	3.9	101	4.9
2016	1,906	100.0	659	34.6	502	26.3	574	30.1	79	4.1	92	4.8
2017	1,812	100.0	625	34.5	451	24.9	581	32.1	75	4.1	81	4.4
< 연령별 >												
15~29세	147	100.0	52	35.4	56	38.0	38	25.6	0	0.2	1	0.8
30~39세	928	100.0	281	30.3	274	29.5	339	36.5	25	2.7	9	1.0
40~49세	590	100.0	224	37.9	106	18.0	178	30.1	43	7.2	40	6.7
50~54세	147	100.0	68	46.1	15	10.0	27	18.5	7	4.5	31	20.7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4월

주 : 1)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

2) 초등학교 자녀 교육에 한 함

6.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및 사유

(단위 : 천명, %)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A)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자(B)		비율(B/A)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 계	5,518		2,555		46.3	
15~29세	225		71		31.6	
30~39세	1,459		635		43.5	
40~49세	2,492		1,214		48.7	
50~54세	1,342		636		47.4	

	경력단절 경험 사유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 계	871	34.1	782	30.6	288	11.3	182	7.1	433	16.9
15~29세	29	41.5	28	40.2	9	12.9	1	1.0	3	4.4
30~39세	196	30.9	258	40.6	104	16.4	34	5.3	43	6.7
40~49세	414	34.1	356	29.3	131	10.8	103	8.4	211	17.4
50~54세	231	36.4	140	22.0	44	6.9	45	7.1	176	27.7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7. 4.

7.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단위 : %)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 2005 >	30.8	23.6	32.5	10.2	6.1	11.2
< 2006 >	32.3	24.4	34.1	11.0	6.3	12.1
< 2007 >	33.6	25.5	34.3	12.5	6.4	13.0
< 2008 >	34.0	28.5	35.0	14.1	8.4	15.2
1000인 이상	35.1	28.6	35.8	14.8	9.9	15.4
999인 이하	33.2	28.5	34.4	13.6	7.9	15.0
< 2009 >	34.1	30.1	34.9	15.1	9.9	16.1
1000인 이상	35.6	29.0	36.3	16.2	11.0	16.7
999인 이하	33.1	30.6	33.7	14.3	9.6	15.6
< 2010 >	34.9	31.2	35.6	16.1	10.5	17.1
1000인 이상	36.4	30.0	37.1	17.0	11.3	17.6
999인 이하	33.7	31.6	34.2	15.4	10.3	16.8
< 2011 >	35.2	32.4	35.7	16.6	11.0	17.6
1000인 이상	36.9	30.5	37.5	17.8	11.9	18.3
999인 이하	33.9	33.0	34.1	15.7	10.7	16.9
< 2012 >	36.0	33.6	36.5	17.0	11.6	18.0
1000인 이상	36.9	30.7	37.5	18.1	11.6	18.7
999인 이하	35.4	34.6	35.6	16.2	11.5	17.3
< 2013 >	37.1	35.7	37.4	18.4	13.9	19.2
1000인 이상	38.0	30.8	38.8	19.6	11.6	20.4
999인 이하	36.4	37.2	36.2	17.5	14.7	18.2
< 2014 >	37.4	36.4	37.6	19.4	15.9	20.0
1000인 이상	38.2	32.4	38.8	20.3	14.2	20.8
999인 이하	36.9	37.6	36.7	18.8	16.4	19.4
< 2015 >	37.8	37.3	37.9	20.1	16.4	20.8
1000인 이상	38.7	33.5	39.3	21.1	14.5	21.7
999인 이하	37.2	38.5	36.8	19.4	17.0	20.0
< 2016 >	37.8	38.3	37.7	20.4	16.5	21.2
1000인 이상	39.4	34.4	39.9	22.1	15.8	22.7
999인 이하	36.6	39.5	35.9	19.2	16.7	19.8

자료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각년도(미승인통계)

주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및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함

* 여성 고용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개별기업의 고용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므로 단순 평균과는 차이 있음

8. 평균 근로시간과 취업자 수

(단위: 시간, 천명)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주36시간 미만			주36시간 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90	53.8	55.4	51.4	1,230	503	727	16,750	10,141	6,609
1991	53.4	55.2	50.7	1,244	484	760	17,284	10,563	6,721
1992	52.5	54.3	49.8	1,300	499	800	17,554	10,779	6,775
1993	52.7	54.5	50.1	1,238	476	761	17,861	10,934	6,927
1994	52.4	54.1	49.9	1,271	493	777	18,440	11,260	7,179
1995	52.5	54.2	50.0	1,262	493	769	19,012	11,581	7,431
1996	52.3	54.0	49.9	1,282	470	812	19,422	11,801	7,621
1997	51.4	53.0	49.1	1,522	581	941	19,513	11,804	7,709
1998	50.1	51.4	48.3	1,835	831	1,004	17,863	10,869	6,994
1999	50.4	52.0	48.2	2,107	936	1,171	17,959	10,892	7,067
2000	50.6	52.2	48.3	2,044	860	1,185	18,903	11,413	7,491
2001	50.4	52.2	47.9	2,150	886	1,264	19,196	11,570	7,626
2002	49.8	51.6	47.3	2,331	983	1,347	19,597	11,835	7,762
2003	49.1	50.9	46.5	2,417	1,000	1,417	19,438	11,884	7,554
2004	48.7	50.5	46.1	2,571	1,064	1,507	19,673	11,968	7,705
2005	48.1	49.7	45.7	2,794	1,198	1,596	19,730	11,957	7,773
2006	47.9	49.6	45.4	2,810	1,184	1,626	20,020	12,095	7,925
2007	47.1	48.9	44.6	3,022	1,288	1,734	20,081	12,163	7,918
2008	46.0	47.8	43.4	3,447	1,530	1,917	19,781	12,014	7,768
2009	45.9	47.9	43.1	3,110	1,277	1,833	20,032	12,282	7,750
2010	45.1	47.3	42.0	3,617	1,501	2,116	19,839	12,249	7,591
2011	43.9	46.1	40.7	4,534	2,034	2,500	19,290	11,941	7,350
2012	44.6	46.9	41.4	3,634	1,472	2,163	20,637	12,749	7,888
2013	43.1	45.3	40.0	4,715	2,064	2,651	19,940	12,348	7,593
2014	43.8	46.2	40.6	3,969	1,571	2,399	21,220	13,103	8,117
2015	43.6	46.0	40.4	3,998	1,563	2,435	21,535	13,252	8,283
2016	43.0	45.4	39.7	4,478	1,760	2,718	21,346	13,209	8,1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9. 자녀 연령별¹⁾ 부모의 근로시간

(단위 : 시간)

	0~17세			
	6세 이하	7~12세	13~17세	
< 2014 >				
맞벌이 가구 ²⁾	43.4	41.5	43.6	45.2
남 자	47.3	46.9	47.2	47.7
여 자	39.5	36.1	40.0	42.6
비맞벌이 가구 ³⁾	47.1	47.6	46.9	46.0
남 자	47.4	47.9	47.2	46.3
여 자	42.3	40.1	42.4	44.1
< 2015 >				
맞벌이 가구	43.2	41.3	43.6	44.8
남 자	47.2	47.0	47.1	47.5
여 자	39.2	35.6	40.0	42.2
비맞벌이 가구	47.1	47.7	46.7	46.1
남 자	47.5	48.1	47.1	46.5
여 자	41.1	39.0	40.9	43.1
< 2016 >				
맞벌이 가구	42.5	40.7	42.8	44.0
남 자	46.5	46.5	46.4	46.6
여 자	38.4	35.0	39.3	41.4
비맞벌이 가구	46.4	46.9	45.9	45.6
남 자	46.7	47.2	46.3	46.0
여 자	40.5	37.6	40.6	42.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 주 : 1)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
 2)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3) 가구주와 배우자 중 어느 한쪽만 취업자인 가구

10. 맞벌이 가구 근로시간

(단위 : 시간)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동거부부	비동거부부
< 2014 >			
남 자	46.8	47.1	44.5
여 자	41.4	41.3	41.8
차이(남-여)	5.4	5.8	2.7
< 2015 >			
남 자	46.7	47.1	43.0
여 자	40.9	41.0	40.0
차이(남-여)	5.8	6.1	3.0
< 2016 >			
남 자	45.9	46.2	43.7
여 자	40.2	40.1	41.1
차이(남-여)	5.7	6.1	2.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0월

11. 초과 근로

(단위 : 시간)

	총 근로시간 ¹⁾	초과 근로시간 ²⁾	사업체 규모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02	199.6	18.1	5.6	10.7	19.2	29.9	26.1
2003	198.2	17.6	6.9	9.5	19.2	27.5	24.2
2004	197.2	16.7	5.3	9.5	18.7	26.7	24.4
2005	195.1	17.6	6.0	10.9	21.1	26.3	24.0
2006	191.2	17.1	5.5	10.6	20.6	25.8	22.9
2007	188.4	16.7	5.3	10.7	20.9	25.3	21.8
2008	184.8	15.9	4.9	10.6	21.2	21.5	19.9
2009	184.4	15.1	5.0	10.8	19.8	21.1	17.3
2010	184.7	16.4	5.4	11.7	21.9	23.4	17.8
2011	182.1	13.6	3.7	9.1	17.8	19.0	18.2
2012	179.9	12.8	4.0	8.9	16.7	18.6	16.2
2013	178.1	12.5	4.4	9.2	16.1	18.3	14.9
2014	177.1	12.9	4.6	9.9	16.3	19.1	15.6
2015	178.4	12.8	4.4	9.9	16.8	18.1	15.4
2016	176.9	12.7	4.5	10.4	17.4	17.8	13.7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2)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 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총계

12. 휴가

(단위 : %)

	휴가 경험자 ¹⁾	5일 미만	5~10일	10~20일	20~30일	30일 이상	평균 (일)
< 2014 >	62.3	49.6	37.8	9.6	1.4	1.5	6.0
성별							
남성	63.6	48.5	37.8	10.7	1.4	1.6	6.2
여성	61.0	50.7	37.8	8.6	1.5	1.4	5.8
연령별							
15~19세	47.6	55.4	27.7	9.5	3.5	3.9	7.7
20대	69.7	42.0	41.2	11.2	1.9	3.6	7.6
30대	80.0	44.4	43.5	10.5	1.3	0.4	5.7
40대	74.6	52.2	36.8	9.3	1.1	0.6	5.3
50대	60.3	56.7	32.1	9.3	0.9	0.9	5.3
60대	40.9	55.9	34.9	5.6	1.9	1.7	5.7
70세 이상	23.7	53.9	35.3	7.3	0.4	3.1	5.8
	휴가 경험자	5일 미만	5~9일	10~19일	20일 이상		평균 (일)
< 2016 >	64.2	48.7	33.7	15.4	2.2		5.9
성별							
남성	66.5	48.0	33.6	15.9	2.5		6.1
여성	61.9	49.3	33.9	14.9	1.9		5.7
연령별							
15~19세	51.1	51.4	27.7	16.3	4.6		7.0
20대	71.4	47.3	31.6	16.7	4.4		6.6
30대	80.4	45.8	37.3	15.1	1.9		6.0
40대	76.8	48.6	34.6	15.7	1.2		5.7
50대	66.6	49.4	34.3	14.6	1.7		5.7
60대	45.8	53.2	28.2	16.7	1.9		5.5
70세 이상	29.4	52.9	35.5	10.7	0.9		4.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주 : 1) 지난 1년 동안

13-1. 하루 평균 여가시간

(단위 : %, 시간)

	현재 평균 여가시간	3시간 미만	3~5시간	5~7시간	7~9시간	9시간 이상	희망 평균 여가시간
< 평 일 >							
< 2016 >	3.1	41.4	42.1	12.4	3.0	1.2	4.0
성별							
남성	2.9	45.6	40.8	10.7	2.0	0.8	3.8
여성	3.3	37.2	43.3	14.1	3.9	1.5	4.1
연령별							
15~19세	2.7	51.8	38.3	9.0	0.6	0.3	3.8
20대	2.9	44.6	44.4	9.6	1.2	0.2	3.8
30대	2.8	46.3	44.3	7.8	0.9	0.6	3.8
40대	2.8	48.1	41.7	8.8	1.1	0.2	3.7
50대	2.9	43.4	44.7	9.7	1.8	0.4	3.8
60대	3.6	30.1	43.4	19.4	5.9	1.1	4.3
70세 이상	4.7	18.6	32.0	29.4	12.5	7.5	5.0
< 휴 일 >							
< 2016 >	5.0	9.7	38.2	31.9	12.4	7.8	6.0
성별							
남성	5.1	8.7	37.1	32.9	12.9	8.3	6.1
여성	4.9	10.6	39.3	30.9	11.8	7.3	5.9
연령별							
15~19세	5.1	12.1	38.4	25.1	13.0	11.4	6.4
20대	5.3	6.9	37.5	33.1	11.8	10.7	6.2
30대	4.8	11.8	39.8	31.4	10.6	6.4	6.1
40대	4.7	11.2	42.4	30.4	10.8	5.2	6.0
50대	4.8	10.5	40.7	31.6	11.9	5.4	5.8
60대	5.1	9.7	34.2	35.2	13.0	7.9	5.9
70세 이상	5.7	4.6	29.4	35.1	18.7	12.3	6.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13-2. 여가시간 충분도

(단위 : %)

	매우 부족	부족	약간 부족	보통	약간 충분	충분	매우 충분	평균 ¹⁾ (점)
	< 평 일 >							
< 2016 >	1.6	4.0	12.5	28.6	31.9	17.1	4.3	4.5
성별								
남성	1.8	4.0	13.6	30.6	31.4	15.2	3.4	4.5
여성	1.5	4.0	11.5	26.6	32.3	19.0	5.1	4.6
연령별								
15~19세	2.5	8.1	17.4	30.7	28.2	11.1	2.0	4.2
20대	1.4	3.0	13.2	31.4	32.3	15.6	3.1	4.5
30대	2.6	5.4	16.1	30.6	29.0	14.5	1.8	4.3
40대	2.1	5.0	15.4	29.7	33.5	12.5	1.7	4.3
50대	1.6	3.7	11.7	32.0	32.2	16.0	2.7	4.5
60대	0.7	2.5	8.2	24.8	34.1	22.3	7.4	4.9
70세 이상	0.1	0.7	3.5	16.2	32.1	32.1	15.4	5.4
	< 휴 일 >							
< 2016 >	1.2	2.2	7.0	22.7	36.4	23.9	6.6	4.9
성별								
남성	1.0	1.8	6.6	23.7	36.9	23.0	6.9	4.9
여성	1.3	2.6	7.4	21.6	36.0	24.9	6.2	4.9
연령별								
15~19세	0.9	3.2	11.1	24.7	35.7	18.6	5.7	4.7
20대	0.6	1.7	5.4	21.2	41.0	24.0	6.1	5.0
30대	1.9	3.2	8.6	26.3	35.7	19.7	4.6	4.7
40대	1.9	2.7	9.5	25.8	35.9	20.4	3.7	4.7
50대	1.3	2.3	6.5	23.1	39.3	23.0	4.5	4.8
60대	0.6	1.7	5.8	21.3	31.8	28.8	10.0	5.1
70세 이상	0.3	0.4	1.7	12.5	32.2	36.8	16.1	5.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년도

주 : 1) 1~7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14.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어린이집 수								유치원 수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계	국·공립	사립
1993	5,490	837	624	19	1,776	2,205	-	29	8,515	4,514	4,001
1994	6,975	983	807	17	2,267	2,864	-	37	8,910	4,461	4,449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	87	8,960	4,417	4,543
1996	12,098	1,079	1,280	69	4,688	4,865	-	117	8,939	4,393	4,546
1997	15,375	1,158	1,634	150	6,388	5,887	-	158	9,005	4,422	4,583
1998	17,605	1,258	1,927	227	7,468	6,541	-	184	8,973	4,455	4,518
1999	18,768	1,300	1,965	266	8,327	6,703	-	207	8,790	4,351	4,439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	204	8,494	4,176	4,318
2001	20,097	1,306	1,991	313	9,490	6,801	-	196	8,407	4,210	4,197
2002	22,147	1,330	1,633	575	10,471	7,939	-	199	8,343	4,240	4,103
2003	24,142	1,329	1,632	787	11,225	8,933	-	236	8,292	4,284	4,008
2004	26,903	1,349	1,537	966	12,225	10,583	-	243	8,246	4,328	3,918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8,275	4,412	3,863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8,290	4,460	3,830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8,294	4,448	3,846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8,344	4,483	3,861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8,373	4,493	3,880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8,388	4,501	3,887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8,424	4,502	3,922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8,538	4,525	4,013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8,678	4,577	4,101
2014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8,826	4,619	4,207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8,930	4,678	4,252
2016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8,987	4,696	4,291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각년도

15-1.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단위 : 명)

	시설이용 아동 수											
	어린이집 ¹⁾								유치원			
	소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만6세반 이 상	소계	만3세반 이 하	만4세반	만5세반 이 상
1995	-	-	-	-	-	-	-	-	529,265	68,652	182,770	277,843
1996	-	-	-	-	-	-	-	-	551,770	74,209	194,343	283,218
1997	-	-	-	-	-	-	-	-	568,096	72,057	191,915	304,124
1998	-	-	-	-	-	-	-	-	533,912	54,834	166,773	312,305
1999	-	-	-	-	-	-	-	-	534,166	61,028	169,877	303,261
2000	-	-	-	-	-	-	-	-	545,263	65,520	173,776	305,967
2001	734,192	-	-	-	-	-	-	-	545,142	69,595	168,980	306,567
2002	800,991	11,632	57,007	137,855	198,000	194,733	159,393	42,371	550,256	74,746	172,356	303,154
2003	858,345	14,686	66,901	159,972	213,557	201,303	172,225	29,701	546,531	75,392	170,940	300,199
2004	930,252	21,445	73,686	167,785	230,516	213,679	183,917	39,224	541,713	76,829	168,613	296,271
2005	989,390	33,647	89,403	179,301	223,628	219,954	195,455	48,002	541,603	74,824	176,963	289,816
2006	1,040,361	46,351	102,473	201,111	221,529	219,974	198,631	50,292	545,812	77,669	170,652	297,491
2007	1,099,933	68,908	122,663	222,258	237,919	207,305	179,562	61,318	541,550	93,005	170,726	277,819
2008	1,135,502	99,245	160,320	242,324	229,424	192,668	175,323	36,198	537,822	99,499	184,178	254,145
2009	1,175,049	107,525	198,831	268,038	227,966	193,934	152,380	26,375	537,361	100,406	185,195	251,760
2010	1,279,910	125,133	229,486	331,637	243,264	180,542	149,278	20,570	538,587	111,482	181,441	245,664
2011	1,348,729	146,666	249,787	342,879	272,034	182,999	137,349	17,015	564,834	133,986	196,602	234,246
2012	1,487,361	177,757	321,716	372,811	259,112	194,413	149,522	12,030	613,749	130,986	229,911	252,852
2013	1,486,980	148,273	325,921	400,781	255,786	184,513	161,877	9,829	658,188	145,778	233,926	278,484
2014	1,496,671	138,563	342,056	409,954	265,338	177,014	155,510	8,236	652,546	156,089	228,129	268,328
2015	1,452,813	137,117	308,227	419,252	253,294	180,249	147,278	7,396	682,553	172,114	249,197	261,242
2016	1,451,215	141,013	318,245	386,726	263,652	180,255	153,893	7,431	704,138	174,907	253,076	276,155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각년도

주 : 1) 어린이집 반편성은 0세반 아동은 전년도 1. 1. 이후 출생아를 함께 편성, 1세반부터는 동년도 출생아 (동년도 1. 1.~12. 31. 출생아)를 함께 편성

15-2. 가정양육 아동 수

(단위 : 명)

	가정양육 아동 ¹⁾ 수							
	소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개월 ~취학전
2010	51,838	24,447	27,391	-	-	-	-	-
2011	89,756	36,662	38,450	14,644	-	-	-	-
2012	102,653	37,727	44,128	18,486	1,178	573	381	180
2013	1,060,484	385,585	346,952	145,049	63,164	38,360	40,445	40,929
2014	1,012,336	383,389	309,908	145,075	60,126	39,152	34,803	39,883
2015	1,009,346	386,361	310,212	132,195	66,546	40,139	37,894	35,999
2016	933,153	363,178	305,911	117,302	47,840	34,711	30,609	33,602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주 : 1)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으로 2009년 7월부터 도입, 2013년부터는 0~5세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 지원 포함

16.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율

(단위 : 개소, %)

	의무사업장 ¹⁾ (A+B)	이행(A)				미이행(B)
		계	직접 설치	수당 지급 ²⁾	위탁	
2006	775	365	199	132	34	410
	100.0	47.1	25.7	17.0	4.4	52.9
2007	791	440	253	147	40	351
	100.0	55.6	32.0	18.6	5.1	44.4
2008	791	476	269	160	47	315
	100.0	60.2	34.0	20.2	5.9	39.8
2009	790	523	284	195	44	267
	100.0	66.2	35.9	24.7	5.6	33.8
2010	833	578	312	208	58	255
	100.0	69.4	37.5	25.0	7.0	30.6
2011	832	604	326	231	47	228
	100.0	72.6	39.2	27.8	5.6	27.4
2012	919	683	359	253	71	236
	100.0	74.3	39.1	27.5	7.7	25.7
2013	1,074	877	534	242	101	197
	100.0	81.7	49.7	22.5	9.4	18.3
2014	1,204	903	635	175	93	301
	100.0	75.0	52.7	14.5	7.7	25.0
2015	1,143	605	578	-	27	538
	100.0	52.9	50.5	-	2.4	47.1
2016	1,153	940	729	-	211	213
	100.0	81.5	63.2	-	18.3	18.5

자료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 실태조사」 각년도

주 : 1) 2006~2010년(12.31 기준), 2011년(6. 30 기준), 2012년(9. 30 기준), 2013년 이후(12. 31 기준)

2) 2015년부터는 영유아보육법 법령개정으로 의무이행수단에서 '수당' 제외

17. 육아휴직자 수

(단위 : 명, %)

	전 체 ¹⁾	여 자	구 성 비		
			남 자	구 성 비	
2003	6,816	6,712	98.5	104	1.5
2004	9,304	9,123	98.1	181	1.9
2005	10,700	10,492	98.1	208	1.9
2006	13,670	13,440	98.3	230	1.7
2007	21,185	20,875	98.5	310	1.5
2008	29,145	28,790	98.8	355	1.2
2009	35,400	34,898	98.6	502	1.4
2010	41,733	40,914	98.0	819	2.0
2011	58,137	56,735	97.6	1,402	2.4
2012	64,069	62,279	97.2	1,790	2.8
2013	69,616	67,323	96.7	2,293	3.3
2014	76,833	73,412	95.5	3,421	4.5
2015	87,339	82,467	94.4	4,872	5.6
2016	89,795	82,179	91.5	7,616	8.5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각년도

주 : 1) 연도별 신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치임

18.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단위 : %, 명)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육아휴직 후 복직자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2008	67.5	19,238	12,982
2009	67.3	20,342	13,696
2010	67.6	27,521	18,596
2011	69.0	35,457	24,466
2012	71.2	46,262	32,933
2013	74.6	53,688	40,053
2014	76.4	58,694	44,817
2015	75.5	68,383	51,61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각년도

주 :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자 기준으로 '16년 종료자는 1년이 경과한 '18년 초에 측정 가능

19-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단위 : 명)

	계	남 자	여 자
2011	39	2	37
2012	437	22	415
2013	736	44	692
2014	1,116	84	1,032
2015	2,061	170	1,891
2016	2,761	378	2,383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각년도

주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수급자 기준, 급여 지급은 '11.10월 시작

19-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 애로사항

(단위: 개, %)

	사업체 수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의 관리가 어려움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	단축된 근로 시간으로 인한 동료 직원의 업무량 증가	단축된 근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대체 근로자 확보가 어려움	회의, 팀워크 업무 수행의 어려움 발생	잘 모름 ¹⁾	사례 없음
< 2015 >	302	5.3	7.9	42.4	11.6	4.0	4.3	24.5
규모								
5 ~ 9 인	25	28.0	4.0	40.0	12.0	0.0	4.0	12.0
10 ~ 29 인	61	4.9	11.5	26.2	11.5	6.6	3.3	36.1
30 ~ 99 인	88	1.1	9.1	48.9	10.2	1.1	5.7	23.9
100 ~ 299 인	71	2.8	8.5	45.1	9.9	7.0	4.2	22.5
300인 이상	57	5.3	3.5	47.4	15.8	3.5	3.5	21.1
< 2016 >	378	6.1	9.0	39.4	15.6	4.0	5.0	20.9
규모								
5 ~ 9 인	43	0.0	11.6	44.2	18.6	2.3	2.3	20.9
10 ~ 29 인	94	7.4	5.3	45.7	13.8	2.1	1.1	24.5
30 ~ 99 인	92	7.6	6.5	35.9	14.1	5.4	2.2	28.3
100 ~ 299 인	78	5.1	10.3	37.2	19.2	6.4	1.3	20.5
300인 이상	71	7.0	14.1	35.2	14.1	2.8	19.8	7.0
< 2017 >	385	4.2	10.4	47.5	14.8	2.1	8.6	12.5
규모								
5 ~ 9 인	40	2.5	10.0	50.0	15.0	0.0	5.0	17.5
10 ~ 29 인	96	2.1	10.4	42.7	13.5	3.1	11.5	16.7
30 ~ 99 인	95	5.3	6.3	48.4	13.7	3.2	11.6	11.6
100 ~ 299 인	80	2.5	12.5	51.3	16.3	1.3	7.5	8.8
300인 이상	74	8.1	13.5	47.3	16.2	1.4	4.1	9.5

자료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각년도(미승인통계)

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

1) 2016년 이전은 '별 어려움 없음'으로 조사, 2016년은 '단축제도에 적합한 직무 설계의 어려움' 포함

20. 가족친화 인증제도

(단위 : 개)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	1,828	285	983	560
2008	9	3	-	6
2009	14	5	3	6
2010	20	6	4	10
2011	80	23	17	40
2012	84	24	13	47
2013	227	59	83	85
2014	444	77	257	110
2015	427	35	292	100
2016	523	53	314	156

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 각년도

주 : '16년 12월 현재 인증이 유효한 기업(기관) 현황임

21.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단위 : %)

	계 ¹⁾	일을 우선시 한다			둘 다 비슷하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주 로	대체로	대체로		주 로			
< 2015 >									
전 체	100.0	53.7	25.7	28.0	34.4	11.9	8.5	3.5	
남 자	100.0	61.7	29.7	32.0	29.0	9.4	6.5	2.8	
여 자	100.0	42.3	20.1	22.2	42.1	15.6	11.2	4.4	
19 ~ 29 세	100.0	60.9	29.0	31.9	28.1	11.1	7.5	3.5	
30 ~ 39 세	100.0	51.7	22.2	29.5	33.5	14.8	10.8	4.0	
40 ~ 49 세	100.0	52.9	25.7	27.3	35.4	11.7	8.6	3.1	
50 ~ 59 세	100.0	55.4	28.3	27.1	36.1	8.4	6.0	2.4	
60 세 이 상	100.0	47.9	23.9	23.9	37.6	14.5	9.5	5.0	
< 2017 >									
전 체	100.0	43.1	18.8	24.4	42.9	13.9	11.2	2.8	
남 자	100.0	49.9	21.7	28.2	39.0	11.1	8.8	2.2	
여 자	100.0	33.7	14.7	19.0	48.4	17.9	14.4	3.5	
19 ~ 29 세	100.0	51.2	20.9	30.3	35.2	13.6	9.7	3.9	
30 ~ 39 세	100.0	39.2	14.7	24.6	43.2	17.6	14.2	3.4	
40 ~ 49 세	100.0	42.7	19.3	23.4	43.9	13.4	11.2	2.2	
50 ~ 59 세	100.0	45.1	21.1	24.0	43.8	11.2	9.1	2.0	
60 세 이 상	100.0	38.1	17.9	20.2	47.7	14.2	11.5	2.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1)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19세이상 인구

22-1.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단위 : 개, %)

		사업체수	출산(전후) 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
< 2015 >							
전	체	1,000	80.3	61.9	58.2	30.2	25.7
사	업						
5	~ 9 인	274	55.1	34.3	27.4	9.1	7.7
10	~ 29 인	276	80.1	55.1	51.8	22.1	18.8
30	~ 99 인	220	93.2	77.7	74.1	40.0	31.4
100	~ 299 인	130	98.5	83.8	85.4	54.6	47.7
300	인 이 상	100	98.0	93.0	90.0	57.0	53.0
< 2016 >							
전	체	1,000	80.2	60.8	58.3	37.8	27.8
사	업						
5	~ 9 인	280	55.1	34.1	26.8	15.6	7.6
10	~ 29 인	282	80.6	54.2	52.8	33.1	23.9
30	~ 99 인	212	94.3	73.6	73.1	43.4	31.1
100	~ 299 인	126	96.1	87.5	86.7	60.9	45.3
300	인 이 상	100	98.0	92.0	93.0	71.0	65.0
< 2017 >							
전	체	1,000	81.1	60.9	59.1	38.5	26.5
사	업						
5	~ 9 인	284	63.4	39.1	33.8	14.1	5.6
10	~ 29 인	271	77.9	53.9	46.1	35.4	23.6
30	~ 99 인	209	92.8	73.2	76.1	45.5	27.8
100	~ 299 인	135	94.1	80.0	86.7	59.3	49.6
300	인 이 상	101	98.0	90.1	93.1	73.3	59.4

자료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각년도(미승인통계)

22-2. 국민의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단위 : %)

	알고 있다						
	출산(전후) 휴가제	배우자출산 휴가제	육아 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보육 지원	가족돌봄 휴직제	유연 근무제
<2015>							
전체	80.7	68.6	77.3	44.1	56.5	36.2	47.1
남자	79.5	69.1	75.5	41.9	55.9	34.9	47.2
여자	82.6	68.1	79.9	47.3	57.4	37.9	47.0
13 ~ 19 세	63.1	48.5	63.4	27.7	37.8	25.2	27.5
20 ~ 29 세	77.3	62.9	73.0	38.9	49.2	30.5	44.6
30 ~ 39 세	87.2	77.0	84.5	51.4	61.2	38.9	52.6
40 ~ 49 세	84.7	76.1	82.1	48.8	62.5	40.9	51.6
50 ~ 59 세	78.9	65.2	75.1	43.1	57.4	38.7	47.3
60 세 이상	65.5	46.8	59.7	26.5	41.9	23.0	27.4
<2017>							
전체	81.7	71.1	79.4	43.2	57.8	35.6	48.7
남자	80.3	71.5	77.2	40.0	55.8	33.7	47.8
여자	83.6	70.6	82.4	47.5	60.6	38.2	49.8
13 ~ 19 세	62.4	52.5	57.0	23.3	37.1	21.6	27.9
20 ~ 29 세	76.7	64.4	76.0	37.5	49.9	29.0	44.6
30 ~ 39 세	87.0	78.9	85.5	49.8	62.4	37.3	55.5
40 ~ 49 세	86.1	78.5	83.8	49.2	64.9	42.4	55.4
50 ~ 59 세	80.9	69.4	78.1	42.8	58.4	37.5	47.0
60 세 이상	70.9	52.5	65.5	25.8	45.3	25.0	28.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 지난 1주일 동안 임금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23. 유연근로제도

(단위 : 개, %)

	사업체수	시간(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 근무제
< 2015 >	1,000	11.3	12.7	9.2	5.3	3.4
사업체규모						
5 ~ 9 인	274	7.7	8.4	6.9	4.7	2.6
10 ~ 29 인	276	8.0	8.7	7.2	5.4	2.2
30 ~ 99 인	220	11.8	12.7	10.0	5.9	4.1
100 ~ 299 인	130	13.8	20.0	6.2	3.1	3.8
300 인 이 상	100	26.0	26.0	23.0	8.0	7.0
< 2016 >	1,000	11.6	12.5	11.6	3.3	4.1
사업체규모						
5 ~ 9 인	276	6.2	6.2	5.8	2.2	2.2
10 ~ 29 인	284	9.2	7.0	5.6	2.5	2.8
30 ~ 99 인	212	12.7	15.6	16.0	5.7	7.5
100 ~ 299 인	128	10.2	11.7	16.4	1.6	3.1
300 인 이 상	100	33.0	40.0	29.0	6.0	7.0
< 2017 >	1,000	24.6	22.7	18.6	9.5	8.5
사업체규모						
5 ~ 9 인	284	19.4	22.9	16.9	9.2	8.8
10 ~ 29 인	271	23.6	18.8	14.8	7.7	8.9
30 ~ 99 인	209	26.8	20.6	21.1	13.4	8.6
100 ~ 299 인	135	25.9	28.1	23.0	8.1	6.7
300 인 이 상	101	35.6	29.7	22.8	8.9	8.9

자료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각년도(미승인통계)